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발행인 김인철 / 편집인 겸 주간 견진만 / 편집장 이진형

hufspress.net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TEL.02-2173-25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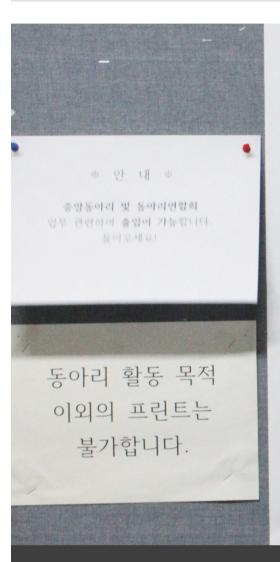
[심층보도]》 4면

2015 한국사회 속 新계급론에 대해 말하다

[기획]》 5면 우리가 바라는 학교

[기획]》》6면 학내 정치 무관심 그리고 선거무산 [인물] >> 16면

학보의 동반자, 독자위원과 함께한 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무산공고문 / 선거151117-1 문서번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제5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중 2015년 11월 17일 오전 6시까지 후보자 추천 및 후보등록 당신과 함께 할 자 등록 신청을 한 선거운동본부가 없으므로, 한국외국어 선째날: @브릭스홀 15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고실기힘든**있**대인을 째날: @나무계단 15 NT 요리경연대회 / 나 내내; 중앙동아리투 -먹거리부스 (도서관-1. 예비후보자 등록 마감 시한 : 2015년 11월 17일 오전 6 2. 예비후보 등록자 : 없음 3. 위와 같이 마감시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예비후보 등록자기 기 때문에,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선거운동본부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진행할 수 없음.

께스토리 연 "총체적난국 총학생회 선거" 서울배움터는 후보자 없어 글로벌배움터는 투표율 미달

서울배움터는 지난달 18일까지였던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에 출마한 선본이 없어 선거가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 단일후보로 나온 '한울'은 최소 투표율 50%에 못 미친 47.47%의 투표율을 기록해 선거가 무산됐다. 서울배움터 총학 선거 무산은 2011년 이후 계속 이어져 왔다. 2012년과 2013년에도 보궐선거를 거쳐 겨우 총학생회가 들어선 바 있다. 글로벌배움터 후보 '한울'은 선거유세기간과 공약 등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 내막을 알아봤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단 사퇴안건 부결

지난 11월 23일 오후 여섯시에 열렸던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총학생회장단 사퇴 심의 및 결의' 안건이었다. 하지만 두 번에 걸친 표결 끝에 결국 이 안건은 부결됐다. 사퇴가 반려됨에 따라 현 49대 총학생회장단은 개정된 학생회칙에 따라 내년 있을 보궐선거 예정일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달 12일 제 63차 비상중앙운 영위원회(이하 비상중운위)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 화에 대한 사범대 학생회장의 발언이었다. 그리고 이를 뒤인 14일 실천사범 페이스북 계정에서 사범대 학생회장이 비상중운위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 문제 삼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10월 15일 제64차 비상중운위가 열려 사범대 학생회장의 발언에 대한 기타 안건이 발의됐다.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운영위원 사이에입장이 갈리는 발언 유출자 색출 시도, 대외비 남발,서기 퇴장은 이 회의에서 비롯됐다. 같은 달 21일에는 외대총학 페이스북 페이지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장단 입장서〉가 게재됐고 26일에 총학생회장단은 〈 사퇴를 각오하며 학우 여러분께 올리는 양심 선언〉을 게재했다. 여기서 총학생회장단은 제64차 비상중앙 운영위원회에서 발언 유출자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 었다고 주장했다. 대외비 남발, 서기 퇴장에 관해서 도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들이 양심선언을 납득하지 못한다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0월 27일일부터 11월 2일까지 발언 유출자 색출 시도, 대외비 남발, 서기 퇴장에 관해 입장이 갈리

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과 사범대 학생회장의 입장문 공방이 이어졌다. 11월 5일에는 비상전체학생대표자 회의를 열어 '총학생회 양심선언 및 중앙운영위원회 입장문에 드러난 사실관계 해석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총학생회의 양심선언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11월 23일 임시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장단사퇴 여부에 대한 두 차례의 표결 결과 이 안건은 부결됐다.

윤수연 기자 91alicia@hufs.ac.kr

2016년 학교를 이끌어 갈 새로운 얼굴들

11월부터 각 단위별로 진행되어 온 양 배움터 단과대학 및 학부 대 표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서울배 움터에서는 총 12개의 단위 중 7개 의 단위에서 선거가 치러졌으며 글 로벌배움터는 통번역대학을 제외 한 나머지 6개의 단위에서 모두 대 표자가 선출됐다. 서양어대, 국제학 부, LD학부, 사회과학대는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비상대책위 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됐으며 통번 역대학은 투표율이 50%를 넘기지 못해 개표가 좌절됐다.

윤수연 기자 91alicia@hufs.ac.kr

서울배움터 〈당선자〉

 \triangle 경영대학 권오준(경영 · 경영 14) \triangle 동양 어대학 이문일(동양어 · 인도어 14) \triangle 사 범대학 남한결(사범 · 독교 13) \triangle 상경대학 박지호(상경 · 경제 11) \triangle 영어대학 강영환 (영어 · 영어 14) \triangle 중국어대학 윤시운(중국 · 중국 14) \triangle LT학부 천은솔(LT 14)

**각 단과대별 투표율 경영대: 50.90% 동양어대: 34% 사범대: 51.94% 상경대: 42.18% 영어대: 41.1% 중국어대: 50.9%

LT학부: 100%

글로벌배움터

〈당선자〉

△인문대학 권희준(인문·철학 12) △동유 럽대학 김현준(동유럽·우크어 12) △국제 지역대 이두영(국제지역·아프리카 12) △ 경상대학 곽준수(경상·국경 12) △자연과 학대학 박현규(자연·전물 10) △공과대학 김찬석(공과·컴전 14)

**각 단과대별 투표율 인문대: 59.7% 동유럽대: 41,2% 국제지역대: 50.0% 경상대: 65.2% 자연과학대: 53.32% 공과대: 54%

제3회 학술대전 수상작 발표

지난 11월 8일 마감한 본보제정 제3회 외대학보 학술대전의 수상작이 다음과 같이 결정됐습니다. 수상작과 총평은 8~13면에 게재합니다. 시상식 일시는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인문과학부문 당선작

「국내 인문학의 위기와 그 원인, 그리고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극복방안」 오기하(영어・영문 10)

△사회과학부문 당선작

「유럽연합의 문화수도 프로그램 분석: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종호(동유럽·세크어 12)

△이공계부문 당선작

「Hardness 농도가 중금속류(Copper, Zinc, Lead)의 물벼룩 생태독성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하홍주(자연ㆍ환경 14) 황선경(자연ㆍ환경 14)

△심사위원

인문과학부문: 신근혜 태국어과 교수 사회과학부문: 견진만 행정학과 교수 이공계부문: 명희준 생명공학과 교수

△상금

인문과학부문 당선 : 50만원 사회과학부문 당선 : 50만원 이공계부문 당선 : 50만원 대학보도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외대학보

내 목소리로 학교를 디자인하다



▲글로벌배움터 팀 프레젠테이션 부문 대상을 차지한 외유내강 팀의 박종은 양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25일 양 배움터에서 학생지원팀의 주최로 학교 발전 및 학생들의 만족도 개선을 위한 '훕스 톡! 외대를 말하다' 경진대회(이하 훕스 톡)가 개최

됐다. 서울배움터는 미네르바 컴플렉스 국제회의 실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수업•학사 △장학• 복지 △진로(취업 및 창업)에 대한 만족도 개선 중 한 가지를 주제를 택해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학 생들이 본선 대회에 참가했다. 주제는 양 배움터가 동일하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철 총장과 최종찬 부 총장을 비롯한 각 처 · 팀장단과 학생판정단 20명 이 자리했다. 1부는 9명의 개인 스피치 부문, 2부는 8팀의 프레젠테이션 부문 본선 진출자들의 발표로 구성됐다. 개인 스피치 부문 대상은 우리학교만의 정체성을 찾고 문화의 벽을 허물자는 내용을 발표 한 온도 보리스(Ondo Boris, 사회 · 정외 12) 군이, 팀 프레젠테이션 부문은 인재양성형 장학프로그램 '미네르바 33인'을 제안한 엑사마(EXAMA) 팀의 문양권(사범·영교 11) 군, 정우석(영어·영어 10) 군, 김희경(상경·국통 15) 양이 수상했다.

문양권 군은 "장학금에 대한 만족도가 학생 만족 도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 요소라고 생각해 우리 학교만의 인재양성형 장학프로그램을 제안했다"며 "생각지 못한 대상을 받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전 했다. 온도 보리스 군은 "학교에 다니며 한국인 학 생들과 외국인 학생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다" 며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 어 대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글로벌배움터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 서도 훕스 톡 행사가 열렸다. 김인철 총장과 이보 화 부총장을 비롯한 학생판정단들이 참석한 가운 데 개인 발표 부문 5명과 단체 발표 부문 4팀이 열 띤 경연을 펼쳤다. 개인 발표 부문은 국제교류프로 그램 참여 후 향상된 실력을 검증하는 제도의 도입 을 제시한 강하은(동유럽 · 폴란드 10) 양이, 단체 발표는 부문에는 성적 장학금 이외의 다양한 장학 제도 도입에 대해 발표한 외유내강 팀의 이정화(경 상 · 경정 13) 양, 박종은(통번역 · 중국어 12) 양, 조승우(공과·전자 08) 군이 대상을 수상했다. 박 종은 양은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들을 가져와 제시 했다"며 "학교가 경진대회 아이디어를 제도화하는 것에 힘 써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강지혜(통번역 · 스페인어 13) 양은 "더 나 은 학교를 위해 사소한 불편함으로부터 출발해 체 계적 아이디어를 내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인상 깊 었다"며 "우리학교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개선하



▲서울배움터 개인 스피치 부문 대상을 차지한 온도 보리스 (Ondo Boris) 군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기 위해 노력한다면 내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 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은혜 기자 90iron@hufs.ac.kr

시민들도 나누는 교양, 시민인문대학

일본어사가 후원하는 '시민인문대학: 한·일 소통의 인문학 강좌'가 진행된다. 강좌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이어져오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동대문 도서관 또는 교수회관 2층 강연실에서 진행된다. 전 강의는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지난 달 24일엔 '일본 경제사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 로 한 이창민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강의엔 약 30명 의 장년층 시민들이 참석했다. 강의에서 이창민 교수는 평 소 한국인이 가지고 있던 일본에 대한 통념을 뒤집으며 경 제적 관점에서 일본을 설명했다. 강의가 끝난 후엔 교수와 시민들의 자유로운 질의문답이 이어졌다. 이날 강의에 참여 했던 40대 여성 박소연 씨는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통해 상 식이 늘고 있다"며 "이번 강의는 계량과 증거의 검증에 대한 중요성 부분이 재밌었다"고 전했다.

시민인문대학은 전문가들이 일본에 대한 자세한 시각과 원활한 한일 교류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지식 나눔

이번 달 22일까지 우리학교 일본어대가 주관하고 시사 과 교환의 장이다. 앞으로 남은 세 번의 강의는 모두 우리학 교 교수회관에서 진행된다.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 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박용구 일본어대 교수
김동규 일본어대 교수
문명재 일본어대 교수

서명지 기자 91signpaper@hufs.ac.kr

대학창조일자리본부 개소 일시: 2015. 11. 26(목) 10:00

대학창조일자리본부 개소식 열려

11월 26일 서울배움터 사이버관 1층에서 '대 학창조일자리본부' 개소식이 열렸다. 개소식엔 김

인철 총장, 조경순 산학연계부총장, 남원준 서울배움터 진로취업지원센터장, 임서정 서울지방고용토동청 청장, 노명종 서울고용센터소장, 우지헌 서울 고용센터 과장, 강석린㈜커리어넷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15년 10월부터 오는 2021년 2월까지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우리학교가 공동 부담해 운영한다. 대학창조일자리본부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과 각 부처의 취·창업 지원서비스와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다. 우리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청년들도 서비스 대상에 해당한다.

서명지 기자 91signpaper@hufs.ac.kr

허울만 좋은 강사법 시행 코앞으로 다가와

지난 10월 2일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 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 인해 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다는 취지의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음 해 1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사법은 2010년 5 다. 또한 강사법이 시행되면 학생들에게도 월 조선대 강사가 열악한 시간강사의 현실 을 고발하며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2011년 제정됐지만 이후 2012년과 2013년에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들도 전임교원 신분이 된다. 학교는 강사를 공개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강사들은 9시간 이상 수업을 해야 하며 학 교는 이런 강사들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하 고 재임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늘어나면서 학교는 6개월이던 기존 강사의 교과 과정을 1년으로 재편하 고 매해 공개 채용을 준비하는 등 학교의 행정 업무와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 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정부의 별다른 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몇몇 학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시간 강사의 수와 그들의 강의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어 결국 대량 해 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러 강의를 통 · 폐합하면 다양한 수업이 사라 지고 대규모 강의가 증가해 학생들의 학습 권과 수업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강사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학교들은 이 에 대한 대책 수립으로 분주하다. 최효영 교무행정팀장은 "학교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결정된 것이 없는 상 태"라며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상황"이라 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한 교수는 "대학과 강사 모두가 꺼려하는 법을 강행하는 이유 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강사법이 시행됨 에 따라 오히려 교 · 강사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문열과 삼국지 새로 읽기

미나실에서 이문열 석좌교수의 특별 강연 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평역(評譯)으로 이 열렸다. 그는 지난 11월 23일 '문학과 정사를 가지고 재해석하는 것이 있다. 그 사회'를 주제로한 강연에 이어 이번 강의 는 "정역은 전문가가 하면 될 일이고, 나는 에서는 '삼국지 새로 읽기'를 주제로 강의 정사를 토대로 재구성하는 방향을 선택했 를 진행했다. 소설 〈영웅시대〉, 〈젊은 날의 다"며 〈삼국지〉를 쓰게 된 계기를 설명했 초상〉,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으로 다. 유명한 그는 이번 강의에서 자신이 쓴 소 시간을 가졌다.

그에 따르면 삼국지를 번역하는 것에 있 했다. 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지난 3일 글로벌배움터 백년관 국제세 정역(正譯)으로, 글자 그대로 사실을 옮기

역사소설에서 재미를 위해 허구를 쓰 설 〈삼국지〉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소통의 는 것과 역사적 사실을 쓰는 것 사이에 충 돌이 있을 것 같다는 학생의 질문에 이문 이문열 석좌교수는 지금까지 2000만 열 석좌교수는 "사실과 허구가 충돌하면 부 판매된 소설〈삼국지〉를 쓰게 된 이유 거의 사실의 편에 선다"며 "최대한 역사적 를 밝히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글 잘 사실과 충돌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대 쓰는 작가도 언제든지 베스트셀러를 낼 수 답했다. 강연에 참가한 유혜인(통번역 · 는 없기 때문에 작가는 항상 부업을 생각 스페인어 11) 양은 "오늘 강연을 듣고 나 한다"며 "보통 작가는 부업으로 잡지사나 니 삼국지가 다르게 보인다"며 "우리나라 기자, 대학 강사쪽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에서 〈삼국지〉로 유명한 작가와 그에 대해 중국고전 번역에 관심이 갔다"고 말했다.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

김정록 기자 91rock@hufs.ac.kr

IS와 이슬람



김수완 아랍어통번역학과 교수

최근 13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파리테러는 프랑스를 포함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파리테러의 주범 인 IS는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정정의 혼란을 틈타 2014년 6월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Abu Bakr al-Baghdadi)가 스스로를 칼리파(이슬람국가□이슬람공동체의 최고 종교 권위자 겸 정치지도자)로 명명하고 선포한 자칭 '이슬람 국 가(Islamic States)'로 그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해왔다. 다 른 테러조직들과 달리 IS가 현재 방대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갖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IS가 사 법, 행정, 군사, 교육 심지어 복지시스템 등 유사국가제체 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IS는 미국인 종군기자와 영국인 구호 활동가 등 2014 년 한해에만 미국인 3명과 영국인 2명을 잇따라 살해했고 2015년에는 일본인 인질 두 명과 최근 중국인, 노르웨이 인 인질을 살해했다. 인질들의 잔인한 참수장면은 고화질 영상으로 촬영돼 SNS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됐고 이는 IS 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강력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됐다. IS 가 기존 테러조직과 차별화되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바 로 그들의 미디어 전략이다.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뉴미디 어를 통해 전 세계 자원병들을 모집하는 등 효과적인 프로 파간다(선전)를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 조직의 새로운 캠페인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IS의 프 로파간다가 전달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지 지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군사적 활동은 물 론 사회봉사 활동도 뉴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그들 은 미디어를 통해 IS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변화의 대리인, 진정한 믿음의 사도, 외세로부터 고통 받고 억압받은 자들 을 위한 보복자들로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IS의 미디어 전략이 주목받는 것은 참수 동영상 공개 같은 범행의 잔혹함보다 그러한 홍보 전략을 위해 전문적 인 미디어 조직을 갖추고 치밀하게 계획되고 수립된 미디 어 전략을 새로운 차원에서 수행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 러한 고도로 계획된 IS의 미디어 전략에 관심을 갖거나 적 극적으로 가담하는 젊은 층들이 전 세계에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사회부적응자나 사회불만세력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IS의 이념논리와 정당성에 포섭되거나 세뇌돼 새로운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로 탄생하 고 있는 것이다.

'IS, 이슬람 국가', 그렇다면 이슬람은 테러종교이며 이 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테러리스트들인가? 단적으로 말 하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이다. IS의 발흥에 아랍, 중동을 포함한 무슬림 세계는 큰 충격을 받고 있고 무슬림들조차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참혹한 야만성에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IS가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국가가 아니라는 무슬림들의 비난이 쇄도할 뿐 아니라, 이슬람국가라는 명 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슬림들은 이슬람국가 의 약어인 IS대신 아랍어 표기의 약자인 '다이쉬(Daish)'로 부르고 있다. 또한 2014년 9월 전 세계 무슬림 지도층 지 식인 126인이 IS 수장인 알 바그다디에게 보낸 공개서한 에서 전통적 이슬람 해석을 바탕으로 IS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IS의 궁극적 목적은 이슬람의 황금기 7세기의 영화를 되살려 동쪽으로는 중국의 신장위구르 • 중앙아시아, 서쪽 으로는 스페인, 북쪽으로는 동유럽, 남으로는 수단 • 소말 리아에 이르는 순니파 이슬람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다. IS 는 근대 이후 이슬람 정치 운동의 몇 가지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이상적 황금기 7세기로 상정한 과거 회귀성, 역사적 문맥을 철저히 무시하고 경전을 읽는 문자주의, 전 통을 무시한 자의적 이슬람법 해석, 타인의 신앙을 검증하 는 타크피르(Takfir), 세계를 이슬람과 비이슬람으로 나눠 이주를 요구하는 흑백 논리, 살인을 정당화 하는 무장투쟁 론. 그리스도인들과 종말론적 전쟁을 통해 십자군을 절멸 하는 반서구, 반세속주의가 바로 그 특성이다.

IS가 주장하는 이슬람은 전통적인 평화의 종교 이슬람 과 그 궤를 달리 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참수 및 테러사건들은 이슬람을 잔혹한 살상의 종교, 테러의 종교 로 잘못 인식시키고 있다. 또한 서구언론을 인용한 이슬람 과 중동관련 국내언론보도는 이슬람과 아랍에 대한 부정 적인 선입관을 갖게 한다.

우리나라도 IS의 위협에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터키 를 통해 IS에 가담한 김군이 대표적이며 최근 국정원에 발 각돼 출국 금지된 또 다른 김군들이 그러하다. IS의 프로파 간다 잡지인 '다비크(Dabig)'의 11호에서 한국은 IS의 타도 대상인 62개의 소위 '십자군 동맹'에 포함된 바 있으며 지 난 주 유포된 유튜브 영상에서 한국은 60개국의 '악마의 동 맹'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IS와 같은 테러조직의 무자비하고 무차 별적인 위협에 이슬람과 무슬림들이 테러의 종교, 테러리 스트로 호도돼 사회적으로 차별받거나 억압받고 희생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외대인이 만난 세계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 멕시코

다시 돌아온 칸쿤(Cancun)은 여전히 뜨거운 햇살이 작열하고 있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멕시코도 가볼 곳이 굉장히 많다. 동쪽 유카탄 반도는 치첸이사(Chichen itza)를 비롯한 유적지와 카리브해를 즐길 수 있는 해변과 섬들이 있다. 서쪽으로는 멕 시코의 전주라 불릴 정도로 음식이 맛있고 다양한 와하까(Oxaca), 2천만 명이 사는 메 트로폴리탄시티 멕시코시티(Mexico city)와 건물들이 아기자기 아름다운 과달라하라 (Guadalajara)가 있다.

하지만 이곳들은 많은 한국어 가이드북에 잘 나와 있고. 여행자들에게도 유명한 편 이다. 필자가 소개하려는 곳은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아름다운,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 까사스(Sancristobal de Las Casas)다. 멕시코에서 제일 빈곤한 주(state)이지 만, 마음만은 가장 살가운 곳이다. 주로 육로로 과테말라를 가기 위해 스쳐가는 작은 마 을이지만, 스페인 식민지 풍의 격자 도로들을 잘 헤집고 다니면 볼거리가 굉장히 많다.

중심의 작은 광장 소깔로(Zocalo)를 두고 북쪽으로 언덕 위에 작은 성당이 있고, 서쪽 으로는 복작거리는 재래시장이 있다. 봉고차로 다니는 미니버스정류장을 지나 쭉 가다 보면, 아이들이 언덕 위를 뛰어노는 판자촌도 있다. 이 작은 도시에서 두 달 정도 머무르 며, 주중에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주말에는 주변의 더 작은 마을들을 돌아보러 다녔다.

산길을 넘어 봉고차에 마을 사람들과 옹기종기 껴 앉아 한 시간 즈음 떨어진 곳. 차물 라(Chamula)는 일요일마다 원주민들의 재래시장이 열린다. 그리고 곧게 이어진 길의 끝에는 카톨릭에 토속종교가 녹아 든 예배를 보는 성당이 있다. 문을 열면 솔잎이 풍성하 게 깔린 바닥과 연기가 자욱한 풍경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 바닥에 앉아 성상을 향해 기 도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고, 닭과 콜라가 그 옆에 자리하고 있다. 가만히 지켜보 니 콜라는 바닥에 흩뿌리고, 닭을 아픈 아이에게 문지르며 기도하다가 그대로 목을 비틀 어 버린다. 닭을 제물로 바쳐 신에게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의 마을도 있는데, 이들은 사파티스타스(Zapatistas)로 불린다. 90년 대에 치열한 무장 자치운동을 벌인 결과, 지금은 세계 여러 NGO들의 기금을 후원 받는 독립기구로 성장했다. 마을 내 자급자족을 추구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큰 도시로 나오기 도 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정부의 사복경찰들에게 수배돼 있기 때문에 무정 부운동을 할 때에는 복면을 쓴다. 마을의 방문은 촌장의 승인 하에 가능하고 돌아보는 내 내 안내인이 같이 다닌다. 자체적인 학교, 상점, 농장 등이 있어 흥미롭게 돌아볼 수 있다.

이들 말고도 지역주민들이 무지 자랑하는 것이 있다. 멕시코의 그랜드캐니언이라며 큰 자부심을 느끼는 '수미데로캐니언(Canon del Sumidero)'이다. 불편한 봉고차를 두 시간이나 타고 가야 하지만, 충분히 수고를 감수할 만하다. 보트를 타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들 사이를 묘기를 하듯 지나다니며 원숭이, 악어, 앵무새, 독수리 등 야생동물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물론 가이드가 해주는 설명은 스페인어지만 압도적인 풍광에 사 로잡히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

70일간 머물렀던 산크리스토발(San Cristobal). 멕시코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 들고, 크리스마스엔 광장에 큰 트리를 세우고, 새해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다 같이 폭죽을 터트리는 곳. 지금까지의 여행 중에 가장 고향 같았던 곳을 꼽으라면 아마도 이곳 이될것같다.

나참솔(상경 · 경제 09)

김정록 기자



고전의 향기

유시현 기자

악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STANLEY KUBRICK'S

사람은 누구나 선하고 악한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뿌리 뽑을 수 없는 악한 본성을 타고나 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시계태엽 오렌지〉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71년 작품이다. 스탠리 큐브릭은 영화에서 죄책감 없는 범죄와 위선적인 사회를 낱낱 이 묘사했다.

영화의 주인공 알렉스는 온갖 비행을 일삼는다. 그는 자동차를 훔쳐 타고 교외의 외딴 집에 들어가 노인을 때려 평생불구로 만든다. 후에알렉스는혼자사는과부를죽 여 결국 감옥에 간다. 그곳에서 그 는정부가만든루드비코요법의실 험 대상자가 된다. 이 치료법은 오 랜 시간동안 강제적으로 폭력적인 영상을 보게 해 범죄를 상상하면 두 통이나구토증상이올라와더이상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만든다. 그러자 알렉스는 자살 을시도하고이에 사람들은 정부를 비난한다. 병문안을 온 정부 관리가 알렉스를 회유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상상하며 "나는 완전히 치유됐다"고 말한다. 알렉 스는 이로써 자신의 폭력성이 회복됨을 드러내며 관객

> 을 기만한다. 알렉스의 모습은 우 리나라의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을 떠올리게 한다.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지난해 3~4월 다른 가 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일병 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 질렀다. 또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일병을 죽음으로 몰았다. 그는 징역 35년을 선고받고도 최근에 군 교도소에서 또 다시 감방 동료 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악은 변하지 않는다. 영화 속 알렉스는 온갖 잔인한 행동들에

대한 보복을 당한 후에도 결코 선하게 변하지 않았다. 이런 범죄자들로 인한 희생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가 해자에 대한 엄격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세잔이 그린 사회



〈사과와 오렌지〉, 폴 세잔, 74x93cm, 캔버스에 유채, 1895~1900, 오르세 미술관

구겨진 식탁보 위에 사과와 오렌지 그리고 물병 이 놓여있다. 과일들을 올려놓은 식탁은 과도하게 비스듬하다. 식탁 위에 놓인 식탁보도 어느 시점에 서 바라본 모습인지 모르게 아무렇게나 구겨져있다. 식탁보 위의 사과는 식탁 밑으로 굴러 떨어질 듯 불 안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견고한 형태 로 안정적인 느낌도 준다. 세잔은 접시위에 놓인 사 과는 위쪽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옆 그릇에 담긴 오 렌지는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그렸다. 이처럼 시점이 고정되지 않고 다각도에서 바라본 사물들을

한 폭의 그림에 그린 세잔의 〈사과와 오렌지〉는 불 안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세잔에게 회화란 그저 사물의 겉모습을 똑같이 그려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물의 본질을 그리 기 위해서 한 시점에서 모든 사물을 그리기보다 각 각 다른 시점에서 사물들을 그렸다.

사회란 무엇일까? 모두 똑같은 사람이 모여 사 는 것은 사회가 아니다. 각자가 서있는 곳이 다르며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즉 사회구성원 각자는 제각 각 자신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서로 다른 사람 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것이 사회다.

하지만 요즘 정부의 행동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 들이 같은 생각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만 같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 하나의 역사관만을 고집한다. 또 한 다른 목소리를 내러 모인 시민들에게 직사로 물 대포를 쏴댔다.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사회 구성원 각각의 본질을 무시하는 행위다. 정부는 국민들을 획일화시키려 하지 말고 사회 구성원들 제각각의 본 질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서로 다른 본질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세잔 의 그림처럼 더 조화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新계급사회? 응답하라 한국사회!

사회 계층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경제적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나누어진 집단을 가리켜 계급이라고 한다. 반면 다양한 사회적 희소가치에 의해 서열화돼 있는 개인과 집단의 복합적인 위치를 가리켜 계층이라고 한다.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유산 계급(자본가)과 무산 계급(노동자)으로 구분했다. 계급사회에서는 동일 계급 내 소속의식이 강하고 다른 계급에 대한 적대감을 강하게 표출한다. 이러한 계급사회에서는 계급간의 경제적 차이가 정치적·사회문화적 차이를 낳는다.

지금 우리사회는 계급사회인가 혹은 계층사회인가?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지났다고 말한다. 이제 **금수저**가 아니면 아무리 **노오력**해도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고착화돼가는 한국사회에서 자조와 관조만 하기에는 우리의 젊은 날이 너무나도 푸르다.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하고 안락한 가상현실(매트릭스)대신 암울한 현실을 마주한다. 그는 진실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며 삶을 이어나간다. 계급사회의 수혜자이든 피해자이든 빨간 약을 선택한 네오처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민낯을 직시해 보자.

경지영 기자 91abraxas@hufs.ac.kr

◆키워드로 보는 한국사회

#헬조선

헬조선은 지옥을 뜻하는 헬(hell)과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조선의 합성어로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기존의 'N포세대'에서 나아가 지옥같은 현실로 더 과격하게 표현된다.

#수저계급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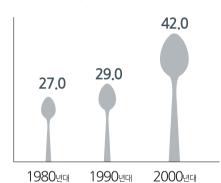
수저계급론이란 부모의 자산이나 소득수준 등에 따라 금 수저, 은수저, 동수저 순으로 계급을 매긴다는 신조어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자식의 성공여부에 따라 부모의 계급 이 결정되는 자식계급론까지 등장했다. 자식계급론은 자 식에 의해 부모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나 심리적 자부심에 따라 금자식, 은자식, 흙자식으로 나눈다.

#노오력

'노력'을 길게 발음한 노오력은 노력만 강조하는 기성 세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 는 사회를 풍자하는 단어이다.

◆통계로 말하는 한국사회

△수저계급론, 현실인가요?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11월 16일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논문을 공개했다. 김교수는 피케티 교수가 제 시한 연간 상속액과 저축액을 이용해 전체 부 의 축적에서 이전된 자산이 기여한 비중을 구 한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속 · 증여가 전체 자산 형성에 기여 한 비중은 1980년대 연평균 27.0%에 불과했 지만 1990년대 29.0%가 됐고 2000년대에는 42.0%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총자산이 100만원이라고 치면 1980년대에는 27만원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것이고 나머지 73만원은 저축 등으로 모은 것이었지만 상속으로 쌓인 자산이 20년 만에 42만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상속 · 증여가 개인의 부에 기여하는 영향력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한국사회에서 수저계급론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셈이다.

△계층 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3년 2015년

지난 11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사회조 사'에 따르면 평생 노력해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 승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답한 사람은 62.2%로 10 명 중 6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 년 조사결과인 57.9%에 비해 무려 4.3% 포인트 높 아진 것이다. 반면 '높다'는 응답은 21.8%로 압도적 으로 적었다.

자식세대에서의 계층이동에 대해서는 '가능성



2013년 2015년

이 낮다'고 답한 비율은 2013년에 비해 6.8% 포인 트 높아진 50.5%였다. 2명 중 한 명은 자식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반면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사람은 31%에 불과했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 53.0%가 중간층이라고 답했다. 이들 중에서도 중상(17.9%)보다는 중하(35.1%)의 비율이 높았다.

이에 두 분의 교수님께서 '생(生)을 앞서 산 사람'을 의미하는 선생(先生)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각각 한 권의 책을 권했다. 카프카는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듯 깨우고 흔드는 책이 아니라면 왜 읽는 수고를 해야 하나. 책은 우리 내면의 얼음바다를 깨는 도끼라야 한다"고 말했다. 선생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가 삼킨 빨간약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자조와 관조의 시대 속 청년세대에게 사유의 망치가 돼 줄 빨간 책을 만나보자.

◆청년들에게 권하는 빨간 책



노엄 촘스키 지음 | 노승영 옮김 책보세 | 2011 11 09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상황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이다. 결코 홀로된 공간에서의 고민과 학문적 행위만으로는 이상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2030세대들에게 정치권 혹은 정부를 향해 문제의 해결 촉구를 어떻게 얼마만큼 제기했는지 따져 묻고 싶다. 2030 청년세대들은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해결해 주겠지'하는 안일함을 버리고 지속적인 국가의 정책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추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광장에 나가 일사불란한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각자가 생각하는 바를 당당하게 투표로써 의견을 타진하는 것이야말로 2030세대의 개인문화에 걸맞은 것 아닐까. 비판적인 시각을 바

탕으로 내는 정당한 목소리는 지도자들로 하여금 정책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그릇된 판단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나는 2030세대에게 〈뉴욕타임즈〉로부터 오늘날살아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인이라고 상찬을 받은바 있는 노암 촘스키(Noam Chomsky)의 『촘스키, 희망을 묻다. 전망에 답하다.』를 추천한다. 언어학자이며 철학자인 촘스키는 대중과 단절된 연구실에서 추상적인 문장만을 만들어내지 않고 직접 사회현실에 참여해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 과감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서 불의에 맞서 늘 항거했다. 이 책은 다소 거칠고 일반적인 사회현상을 늘여놓은 듯한 표면적인 문장들 이면에 일반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없는 사회구조와 사회의 본질에 대해 날카롭게 다루고 있다. 국제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논리로서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어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이 책을 통해 개인적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나가는 데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

이주열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



가즈오이시구로지음 | 김남주 옮김 미우사 | 2009 11 20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나를 보내지 마.에는 복제인간들이 거주하는 '헤일섬'이라는 구역이 등장한다. '헤일섬'은 '정상 인간'들의 거주지와 다를 바 없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헤일섬'에서 양육되는 복제인간들은 17~20세가 되면 정상인간들의 장기 이식을 위해서 하나씩 '차출'된다. 뇌사자나 사고자의 기증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장기이식 수요를 메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섬뜩한 설정이지만, 소설 속의 '헤일섬'은 고요하기만 하다. 이와 비슷한 영화 《아일랜드》에서는 복제인간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거부하고 탈출을 시도한다. 그들은 정부가 파견한 특수부대와 처절한 전투를 벌인다. 하지만 이 소설에는 그런 액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헤일섬'의 복제인간들은 "조금 더 살고 싶다"는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기껏

해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보내 달라'는 요구를 할 뿐이다.

가상의 미래를 다뤘지만 이 소설은 현실에 대한 소름끼치는 알레고리를 담고 있다. 복제인간들은 다른 삶을 상상하는 능력이 미미하다. 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일방적으로 운명을 설계하는 체제에 질문을 던지지도 않는다. 인간세계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이 그들의 생, 그 자체다. 한국 사회가 청춘들에게 강조하는 '바람직한 청년상'과 아주 흡사하지 않은가. '순종'과 '적응'만을 강요하고 '규칙'과 '질 서'를 위반하면 '부적응자'나 '패배자'로 낙인찍히기 십상인 지금—여기의 현실은 독자로 하여금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곳은 과연 '헤일섬'과 얼마나 다른가. 복제인간들이 순종할수록 장기이식을 주도 하는 대기업과 의료기관이 더욱 부유해진다는 사실은 소설 속의 '헤일섬'을 바라보는 독자에게 높은 기시감을 선사한다. 다른 삶은 가능하다. 그 가능성은 상상력으로부터 움튼다. 우리가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지금—여기가 바로 헤일섬'이다.

당신의 속마음

학교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NCSI 국가고객만족지수는 재학생들이 학교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014학년도, 우리학교의 NCSI 지수는 14개 학교 중 13위다. 우리는 왜 학교에 불만족하는 것일까? 우리가 바라는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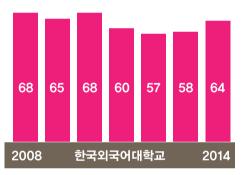
◆NCS(국가고객만족도)란?

고객이 평가한 제품 및 서비스 만족지수를 나타내는 NCSI 국가고객만족지수는 국가, 경제, 산업, 기업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기업 부문 '교육 서비스'업 항목의 사립대학 평가에서 우리학교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확 인할 수 있다. NCSI 모델은 미국과 유럽에서 품질경쟁력 측정모델로 채택돼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모델로서의 완성도와 함께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높은 지표다. 즉, 재학생들이 우리학교의 수준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교수, 강사, 교과과정, 실험실습 기자재, 컴퓨터, 도서관, 학사관리 및 행정서비스, 취업, 학생편의시설 등 학생들이 생활하며 느끼는 모든 분야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NCSI의 정확한 평가 지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지난 10월, NCSI 피설문자로 설문에 참여 한 우리학교 재학생 윤○○양에 의하면 1:1 면담 형식으로 설문이 진행되며 피설문자는 설문지를 직접 볼 수 없 고 설문자가 말하는 내용에 구두로 답변한다.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적, 구체적으로 조사하며 설문은 약 15 분가량 소요된다. 윤 양은 "이미 단과대 별로 조사할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 모든 단과대 구성원을 조사하는 방식 이었다"며 "우리학교를 후배에게 추천할 것인가 등의 솔직한 대답을 요구하는 답변이 있어 다른 설문조사보다 진정성 있게 대답했다"고 말했다.

현재 NCSI는 \triangle 서강대 \triangle 이화여대 \triangle 중앙대 \triangle 성균관대 \triangle 한양대 \triangle 연세대 \triangle 숙명여대 \triangle 고려대 \triangle 경희 대 △건국대 △동국대 △인하대 △홍익대 그리고 우리학교를 포함한 14개 사립대학의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대학 부문 고객만족도는 1998년도부터 시작돼 이 때 부터 NOSI 만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교는 위의 14개 학교 중 우리학교를 포함한 10개 학교에 해당한다. 단, 우리학교의 데이터 등록이 시작된 시기는 2002년부 터다.

◆우리학교 만족도와 타 대학의 만족도



출처: NCSI홈페이지

2014학년도 NCSI 지수가 70점 미만인 대학은 △연세대 △인하대 △건국대 △중앙대 우리학교 까지 5개 대학이다. 그 중 우리학교는 64점으로, 현 재 조사 대상인 14개 대학 중 13위로 최하위 권을 기록했다.

우리학교는 2007, 2008학년도 자체 최고치 인 68점을 기록해 조사 대상 대학 중 3위를 차지 했다. 학교는 지난 2008년 「우리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이중전공제도, 7+1제도, 외국어 졸업인증제 도, 연계전공제도,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인턴십 및

KOTRA 무역관 인턴십 등 타 대학과 차별화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서울배움터 기숙사 완공, 건물 및 강의실 환경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만족도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조사 시작 이래 단 한 차례도 70점을 넘지 못했으며 2008학년 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5~60점대를 기록하고 있다. 만족도가 이렇게 최하위 권에서 머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와 학생들. 친해질 수 있을까?

평가감사팀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라 꼬집었다. 평가 감사팀 관계자는 "학생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비해 수업의 질, 행정 등 서비스 품질 면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만족 도는 낮기 때문에 만족도 점수에서 계속 하위권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강의 만족도와 행정 서비스에 더욱 신경 쓰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2013학년도에 비해 2014학년도 NCSI 지수가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해 노력을 기울인 만큼, 지난해보다는 개선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갖고 있 다"고밝혔다.

지난 11월, 학생지원팀은 양 배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강 의평가, 교수평가 등의 특정한 목적을 갖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면 이번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개선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평가감사팀은 "약 800명이 참여해 예상보다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71문항으로 구성돼 다소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설문조사의 형식도 참여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학교 측 "학생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것"



출처: NCSI홈페이지

◆1위가 중요한 것 아냐, 꾸준 히 개선하는 모습 중요

동국대는 2014학년도까지 NCSI 지수가 꾸준 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학기 마다 전체 학생 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교과과정 및 학 사, 행정서비스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선활동을 추 진했다. 또한 e-민원시스템 및 학생CS센터를 통 해 학생들의 불만이나 건의 사항을 수집, 사후 관리



출처: NCSI홈페이지

한 것이 지속적인 만족도 상승의 원인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학생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재학생들 의 시선에서 학교를 바라보고 개선할 방향을 찾는 노력도 보였다. 경희대 역시 꾸준히 만족도가 상승 해 온 학교다. 경희대 측은 교육과 연구에 대한 지 원을 확대하고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 속적인 만족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8년 이후 NCSI 점수가 꾸준히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 희대는 불만사항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매 년 시행해온 만족도 자체 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 만족도 제고 사업을 추진했다. 두 학교 모두 비록 1위는 아니지만,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고민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학교 학생들이 말하는 학교 발전 방안은 무엇일까.

'HUFS톡! 외대를 말하다!'(이하 훕스 톡) 경진대회의 팀 프레젠테이션 수상작 내용(2면 보도 참조)에서도 많 은 참가자들이 학생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NCSI 지수를 활용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주요 서울시내 주 요 사립대학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학교 만족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훕스 톡 수상자 들이 제시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한다.

〈서울배움터〉

대상: 엑사마(EXAMA)

●학교의 문제점

"학생들의 성취욕을 자극하는 특별한 인센 티브 장학제도와 우리학교만의 특별한 홍보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개선방안

"인센티브형 장학 프로그램(미네르바 33인) 을 설치 및 운영해 우리학교만의 글로벌 인재 양성 홍보로 활용하자"

*미네르바 33인: 한국형 성인인, 구국에 앞 섰던 민족대표 33인에서 모티브를 얻어 글로 벌 지성을 갖춘 33인의 인재를 발굴하자는 취 지에서 만들어진 인재양성형 장학 프로그램. 단순히 성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대학 입학 후 무엇을 했느냐가 장학금 지급에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기획했다.

〈글로벌배움터〉

대상: 외유내강

●학교의 문제점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유형이 다양하지 않 고 학생들이 학생지원팀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장학정보 이용률이 저조하다. 학생지원팀 업 무홍보와 교내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

"장학금 유형의 다양성을 보장 하고 다양한 장학프로그램을 실시해 자발적 자기계발 유도 함과 동시에 장학금의 고른 분배를 꾀하자. 또, 학생지원팀의 글로벌, 서울, 교내, 교외카테고 리가 모두 혼재돼있어 이용률이 낮다. 카테고 리를 서울, 글로벌, 교내, 교외로 나눠 세분화 해야한다"

최우수상 : 손에 손잡고

●학교의 문제점

"글로벌 국제대학으로서의 명성과 경쟁력 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학교"

●개선방안

"HI 프로그램 도입으로 기존 학생 자치 기 구 주도 하에 이뤄졌던 버디 프로그램 등의 언 어교류 프로그램과 달리 학교가 주축이 돼 체 계적으로 외국인과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적절한 학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으 로 만족도를 높이자"

*HI 프로그램:훕스(HUFS)의 'H'와 인터내 셔널(International)의 'I'를 차용. 외국인 지원 자와 한국인 지원자 간의 체계적인 문화교류 를실시한다.

최우수상: 토끼친구들

●학교의 문제점

"우리학교 특성상 학생들이 통번역 아르바 이트를 많이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기에 구체 적 경력으로 증명하기 힘들고 수시로 올라오 는 통번역 구인 글이 올라와도 이를 모아서 보 기 어렵다. 또한 국제교류프로그램으로 유학 을 하고 오지만 국내에서는 배운 것을 활용할 기회가 적다"

●개선방안

"중소기업통번역지원센터를 만들어 학생 들이 현지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 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의 통번역 경험 이 경력이 될 수 있도록 통번역업무지원 증명 서를 발급한다. 또한 통번역지원센터를 신설 한다면 기업의 요청을 전담하는 학교기구가 생길 것이다. 센터는 학생과 기업을 연결하고 직접적으로 통번역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

박창호 학생지원팀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개선방안을 취합해 학교에 보고할 계획"이 라며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정책에 실제 반영해 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혜 기자 90iron@hufs.ac.kr





양 배움터 선거는 왜



학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최근 서울배움터의 모습을 보면 그 무관심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11월 총학생회 선거는 5년 연속 무산돼왔고, 그 중 3년은 등록된 후보자가 없어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매 학기마다 진행되는 정기전체학생총회(이하 정기총회)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다.

◆ 위기의 서울배움터: 그 많던 학생들은 어디로 갔을까?

올해도 어김없이 국제학사 4층 총학생회 게시판에 제5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무산을 알리는 대자보가 붙었다. 예비후보자 등록 마감기한인 11월 17일 오전 여섯시까지 등록한 선본이 없었기 때문이다. 각 단과대 및 학부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후보자 등록이 없어 선거가 무산된 서양어대, 일본어대, 국제학부, LD학부, 사회 과학대는 내년 보궐선거 시점까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운영하게 됐다. 하지만 후보자가 나왔다고 해도 안심하긴 이르다. '투표율'이 변수가 된다. 일부 단위들은 저조한 투표율로 연장 선거에 돌입해야만 했다. 다른 문제는 없을까? 학생들이 모여 학내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 정기총회도 번번이 무산되기 일쑤다.

◆모두가 꼭꼭 숨은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칙이 바뀌기 전에는 11월 선거가 무산되면 비대위가 꾸려져 다음해 3월이나 4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총학생회의 업무를 대신했다. 하지만 비대위의 문제점은 이 미 많이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이번해초에 있었던 학교 측의 성적평가방식변경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나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같은 문제의 경우 비대위의 지위로는 학교에 학생의 대표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이번해부터는 변경된 총학생회칙 제84조에 따라 11월 선거가 무산될 경우 현 총학생회가 사퇴하지 않는 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3월 혹은 4월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됐다. 유경원(경영ㆍ경영 12) 경영대학 학생회장은 "서울은 지난 3년 동안 후보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11월 선거가 무산돼왔다"며 "학교의 주요한 정책이 결정되고 학생사회 체제 개편이 이뤄져 한 해를 꾸려나가는 디딤돌이 되는 1월에서 3월 사이에 총학생회보다 대표성이 떨어지는 비대위가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에 많은 부족함을 느껴 회칙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말해 변경된 세칙의 발의배경이 현재 서울배움터의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밝혔다.

김동규(서양어 · 노어 12)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11월에 선거가 치러지는 것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업무 효율의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본격적인 학기가 시작되기 전 정책을 다듬어 나갈 시간이 있는 11월 선거와 달리,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당선과 동시에 봄 대동제나 농활 등의 사업을 즉각적으로 처리해야만 한다"며 보궐선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5월에 있었던 봄 대동제는 부실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정기총회는 어떨까? 김동규 총학생회장은 "정기총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지면 학생 동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정기총회가 성사되면 안건이 공론화 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범위도 더 넓어져 학생사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기총회의 안건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나름의 진단을 내렸다.

♦왜 이리도 우리는 학내 정치에 무관심한가

선거나 정총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와 무관심의 원인은 무엇일까? 본인이 속한 단과대학·학부의 학생 회장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익명을 요청한 A양은 "솔직히 학생회가 바뀌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학생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일반 학생으로서는 잘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것은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그 영향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 점점 무관심 해진다는 것이다. 김동규 총학생회장 또한 "과거에 비해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매력을 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B 군은 4월에 열렸던 상반기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학교 학생으로서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하반기 정기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세 시간여 가량을 정족수가 채워지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렇지 못해 실망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다른 학생의 의견도 비슷했다 주찬호(상경 · 국통 15) 군은 "학교 운영상황이 궁금해 정기총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결국엔 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동아리 날짜와도 겹쳤을 뿐 아니라 어차피 가도 사람이 오지 않아 소용이 없다는 주변의 말을 들었다"고 이유를 전했다. 정족수 부족으로 정기총회가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며 학생들이 이에 대해 참여의지를 느끼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 진행된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선거엔 논란이 있었다. 총학생회 단일 후보였던 글로 벌배움터 선거운동본부 '한울'은 결국 투표율 50%를 얻지 못해 개표조차 못하고 선거가 무산됐다. 또한 국제지 역대학과 통번역대학의 단과대장 투표 기간은 연장됐다. 서울배움터 학내 정치부터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 · 단과대 선거 및 투표까지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이번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선거(이하 총학)는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2013년도에 치러진 제 35대 총학선거 무산 이후 두 번째다. 우리학교 세칙 제11장 당선자 결정 제 60조(유효투표율)에 의 거하면 투표율이 전체 투표자의 50%(3439명)가 돼이하는데 이번 총학선거는 투표율 47.47%(3265명)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총 유권자 6878명, 오차범위 73표(약1.06%))

단일 후보였던 글로벌배움터 선거운동본부 '한울'(이하 한울)은 유세기간 내내 우여곡절을 겪었다. 11월 13일, 한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게 세칙 제30조에 의거, 선거 유세 시간 및 장소 위반으로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정견토론회에서 정후보인 김도현(국제·아프리카 12)양은 "2주의 유세 기간 가운데 1주일을 준비 미흡으로 허비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그대로 학생들의 학내 정치 무관심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어떤 학생은 누가 당선되든 혹은 총학생회가 없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투표장을 떠났고 또 다른 학생은 반대표 대신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실 학생들 사이의 여론은 단독후보인 한울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공약이 너무 부실하다", "유세 운동에 적극적이지 않다"등의 학생들의 불만도 제기됐다. 학교 커뮤니티에는 "선거를 하지 않아 투표율을 미 달시키자"는 의견도 등장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의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여기서 그들의 '투표권 포기'는 '반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로 유권자의 투표권 포기는 옳을 까? '한울'의 당선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는 투표권 포기가 '반대표'보다 효과적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냐 라는 물음에는 쉽게 긍정할 수 없다.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일까? 의무일까?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은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언을 남겼다.

◆통번역대학, 국제지역대학 단과대장 투표 기간 연장, 왜?

이번 단과대 학생회장 선출 과정에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기존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였던 국제지역 대학(이하 국제대), 통번역대학(이하 통대) 선거가 30일(월)에 하루 연장됐다. 이에 학교 커뮤니티에서는 선관위의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제대 선관위장 최혁순(국제 · 브라질 11) 군은 "25일 선관위의 불찰로 세칙 상 오전 9시부터 시작인투표가 몇 십분 지연됐다"며 "선관위 회의를 거쳐 30일 하루 투표 기간을 연장했다"고 답했다.

통대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단독 후보자인 고지상(통번역·이랍어 11) 군은 "어문관 수업이 예전보다 줄어 그에 비례해 유동인구도 줄었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의 이의 제기에 대해 시간 표를 참조해 어문관 수업 수의 변화를 조사했다. 어문관 수업이 지난해에 비해 41개 줄었다는 것을 파악한 선관위는 유권자 유동인구 저하가 크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여 투표 기간을 연장했다. 두 단과대학 선관위 모두회의 후 세칙에 따라 투표기간을 연장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24일부터 26일까지가 기존 투표기간인데 연장됐으면 바로 다음날인 27일 금요일로 연장돼야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학생들의 문제제기에는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았다.

이에 통대 선관위장 김도현(통번역 \cdot 영어 12) 군은 "선거세칙 제 50조 2항에 의거, 투표 기간 연장에 대해서 '다음 날'이라는 말은 없다"며 "연장 사유가 유동인구 감소 때문인 만큼 상대적으로 수업이 적은 금요일 보다는 월요일이 적합할 것이라 판단했다"고 답했다.

국제대의 경우 선관위 측의 불찰로 25일 선거 시작 시간이 지연된 점은 학생들의 원성을 샀다. 지난 35대 총학선거에서 당시 중선관위의 실수로 투표개시가 늦어져 중선관위 당사자는 중선관위 직위를 박탈당했다. 이에 대해 당시 용인시처인구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시작 시간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규정 위반 시조치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바 있다.

◆글로벌배움터 선거는 왜

양 배움터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모두 무산된 경우는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배움터는 2013년에 총학선 거가 무산된 후 단과대 회장들이 모여 조봉현 전 총학생회장을 제 48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학교 측은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학평의원회 의원 자격을 취소했다. 이로 인해 비상대책위원장이 등록금을 논의 및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월 8일 학교 측은 대표성 인정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인준한 전체 학생대표자들의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비대위는 700명의 학생들에게 대표성 지지서명을 받았 지만 20일까지도 답변이 없어 조봉현 위원장의 등심위 참석여부가 불투명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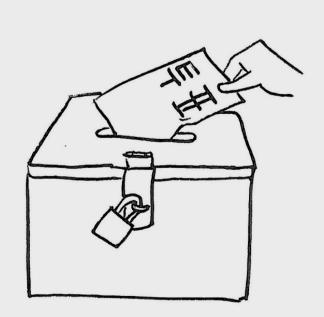
이에 따라 비대위는 22일 서울배움터 본관 로비에서 학생권리 장례식을 치렀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장례식에서는 비대위원들을 비롯한 60여명의 학생들이 헌화행렬을 이어갔다. 결국 학생대표의 등심위 참석여부 문제는 장례식 다음 달인 2월 3일, 김시홍 학생복지처장과 학생대표 간 면담이 이뤄지며 간신히 매듭을 지었다.

이번해 글로벌배움터는 투표율 미달로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다음해 1학기 중 보궐선거를 거쳐 정식으로 총학이 출범하기 전까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것이다.

1월에서 3월에 등록금심위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 등에서 당해 연도 학교 예산안과 등록금을 심의하는 등 매우 주요한 사안들을 다루는 시기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성원(통번역·중국어 12) 글로벌배움터 학생회장은 "비대위 체제는 인지도나 지지도가 총학에 비해 다소 부족해 정책을 추진하는데 무관심이 우려 되는 부분이 있어 단과대 학생회와 함께 문제들을 보완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전했다.

글로벌배움터 학생들은 스스로 투표권을 행시하지 않으며 비대위를 택했다.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봐야 한다.



특별취재팀 유시현 \cdot 윤수연 \cdot 김정록 기자 정리 유시현 기자 91qhdodb@hufs.ac,kr



대륙영화의 사조

임대근 교수는 우리학교 학생상담센터장, 중국영화포럼 사무국장, 숙명여 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영화연구를 비롯해 아시아 대중문화연구 등 활발한 연구 성과와 국제 교류 활동 수행의 공으로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5년 판(제32판)에 등재됐다.



5세대, 홍콩느와르, 대만 뉴웨이브가 동시대에 만들어 졌다. 이때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들이 홍콩, 대만, 대륙에서 많이 나왔다. 내부적으로 이를 학자들은 '중국어로 된 영화들'이라 해 화어영화라 부른다. 기자는 중국영화연구의 권위자인 임대근 교수에게 문화대혁명시대를 시작으로 대륙영화의 사조에 대해 들어봤다.

▲문화대혁명 시대

문화대혁명은 1966년에서 1976년까지 있었던 중국의 역사적 시건 이다. 1949년도에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중국 정부가 수립됐다. 그 후 공산당이 경제적으로 생산력을 높이지 못하자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런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세력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문화적인 측면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야겠다는 취지에서 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공산당 일당독재에 의해문화예술창작방침을 발표하면서 대단히 급진좌파적인 운동이 됐다. 홍위병이라 칭하는 이주 젊은 학생들을 동원해 '혁명을 계속해야 된다!'는 목표를 내세워 서양제국주의를 반대했다. 또한 중국의 봉건주의를 반대하기 위해 극좌적으로 전국적인 운동을 펼쳤다. 비민주적으로 이뤄져서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이 숙청당하고 많은 문화재들이 훼소됐다. 문화대혁명 시대는 중국현대사의 비극으로 암흑의 시대사라



▲문화대혁명시대 포스터

칭한다.

▲문화대혁명시대 영화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던 4인방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중 마오 쩌둥의 부인인 '강청'이라는 사람이 있다.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강청은 영화창작지침을 내린다. 창작지침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돌출 원칙이다. 3단계를 거쳐 영웅캐릭터를 부각시켜야한다는 삼돌출 원칙은 평범한 인물들 중에 뛰어난 인물들을 부각시키고 뛰어난 인물들 중에다시 영웅적인 인물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영화창작 자체를 규범화하고 지침화했다. 당시 모든 영화들은 강청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문화대혁명당시 영화는 대단히 교조적이고 규범적인 영화들이 몇 편 남아있다. 문화대혁명시대 영화로는 〈홍생낭자본〉 〈지취위호산〉이 대표적이다.

▲5세대 영화

문화대혁명이 1976년도에 끝난 후 1978년도에 중국이 개혁개방돼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5세대 감독은 80년대 초반의 문 화대혁명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북경에서 영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은 '북경필름아카데미'다. 이 기관은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폐교됐다가 1978년도에 다시 열렸다. 5세대 감독들은 그때 78년도에 들어가 82년도에 졸업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북경영화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다양한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들은 새로운 중국 영화의 미학을 발굴하려고 노력했다. 중국의 근현대시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 문제를 새로운 시 각으로 바라봤다. 혁명 일변도의 영화들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들이 개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다뤘다. 여성문제도 다뤘는데 매매혼과 같이 1923년대를 배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여성의 현실을 다뤘다.



▲5세대 영화 〈패왕별희〉

▲주선율 영화

주선율 영화는 1987년부터 시작된 공산당의 지원 하에 만들어진 영화다.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갇혀있던 중국이 갑자기 개방되자 서양의 많은 새로운 사조, 스타일, 분위기가 중국으로 들어왔다. 공산당은 기존의 혁명영화를 국민들을 교육하는 수단으로 썼는데 사람들은 기존의 딱딱한 혁명영화보다 5세대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영화들을 더 선호했다. 따라서 공산당은 대안으로 이데올로기를 교육시키는 내용들을 담되 부드러운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내용으로 공산당과 혁명의 위대함을 강조하지만 형식이나 스타일을 바꿨다. 중국 근현대사를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나 공산당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주로 다뤘다.

▲6세대 영화

5세대가 처음 등장한 후 새로운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해 해외에서 도 인정받았다. 그런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당과 정부가 만들어 놓 은 검열시스템을 통과해야 한다. 이 검열시스템은 최소 3단계로 이뤄 져있다. 첫 번째로 시나리오를 검열 받아 통과돼야 영화촬영을 시작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완성된 영화에 대한 기술심시와 내용심사를 받 아야 한다. 통과하지 못하면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영화를 상영하는 중에도 문제가 생기면 영화를 금지처분 할 수 있다.

중국내부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 이 제도를 따라야 한다. 지금은 완화됐지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장이모우, 천카이거와 같은 5세대 감독들은 해외영화제에 나가 유명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해외에선 인정받아도 궁극적으로 중국에 들어와 영화 활동을 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에 따라 천카이거와 장이모우는 중국당이요구하는 제도를 그대로 순응하면서 당과 정부가 원하는 방식의 영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2000년대를 전후해서 원래 이사람들이가지고 있던 새로움에 대한 추구, 저항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상업성을 추고해다

이런 모습들을 본 북경영화아카데미 후배들이 자신의 선배들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6세대가 새롭게 등장했다. 6세대는 1990년대 중반 에 나온 세대다. 5세대 감독들이 미학적인 중국을 보여줬다면 6세대 감독들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줬다. 그들은 인위적으로 색깔을 가미하지 않으면서 사실주의적 경향을 보여줬다. 중국의 뒷골목 거리 풍경, 밥 먹는 모습, 싸우는 모습 등을 중국의 촌구석을 다니면서 일상 적인 풍경을 찍었다. 화려했던 5세대감독들의 영화 미학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만든 것이다.

6세대는 가장대표적인 감독으로 지아장커(賈樟柯) 감독을 꼽을 수 있다. 지아장커 감독의 대표적인 영화로는 〈소무〉 〈플랫폼〉 등이 있다.

▲중국 영화의 현주소

세대라는 명명자체는 6세대에서 끝난 것 같다. 5세대, 6세대라 부른 것은 작가주의적 관점에서 영화를 예술로 봤기 때문이다. 지금도 예술로써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상업적인 측면이 커졌기때문에 세대로 더 이상 중국영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현재 중국영화는 다원화되고 있다. 상업영화, 독립영화, 코미디, 청춘영화들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매번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영화는 분화하고 있다.

최근엔 한국에 중국영화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 안타깝다. 중국 내부에선 흥행하고 성공하는데 해외관객들에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코미디 영화도 중국 내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데 중국의 특수한 맥락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할리우드, 한국영화 등에 한국 사람들이 익숙해져있고 특수한 중국내부의 특징들과 특수성이 강조되는 영화가 있어 중국영화는 외국에서 보편성을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참고 문헌〉

제6세대 중국 영화의 성찰과 도전 포스트 뉴웨이브 시대 중국 영화와 국가 이데올로기 초기 중국영화의 한 면모 : 연극영화의 창작 중국영화감독시리즈 Life & Culture '난징! 난징!'일 본의 난징 대학살 해부 성찰과 비판 없이는 용서도 없다

지본숭배 풍조 속 '의리'를 지킨 영웅 무사와 협객은 '삼합'으로 모이다



3 **학술대전**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외 대 학 보**

제3회 외대학보 학술대전

인문과학부문 🚊

당선작

1. 서론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지도 어느 덧 1년이 지났다. 아직도 애플은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우뚝 서있고, 이는 그만큼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스티브 잡스에 관한 책이 수없이 등장하고, 본인의를 모델에 스티브 잡스를 꼽는 사람들도 심심찮게볼 수 있다. 이렇게 아직도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스티브 잡스.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I would trade all of my technology for an afternoon with Socrates." 바로 스티브 잡스가한 말이다. 평소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에 지대한 관심을 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인문학으로 유명한 리드 대학에 입학했고, 그 대학에서 실행한 '고전 100권 읽기' 프로그램이 본인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더 실제적인 예로, 그의 아이패드2 출시 설명 연설을 보면, Liberal Arts와 Technology라고 적힌 두 화살표를 겹쳐 둔 그림이 나온다. 그 그림을 통해서 그는 "우리가 창의적인 제품을 만든 비결은 우리는 항상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고자 했다. 기술과 인문학, 이 두 가지의 결합이 애플이 일련의 창의적인 제품을 만든 비결이다." 라고 연설했다.

이처럼 인문학은 분명히 재조명받고 있다. 또 하나의 예로 삼성소속의 삼성경제연구소 또한 지 난 해 9월 '인문학이 경영을 바꾼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소비자가 아이폰과 페이스 북에 열광하는 이유는 첨단 기술과 새로운 기능이 아니라, 단순하고 편하고 재밌는 것을 원하는 인 간 본연의 욕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 간 기술 및 가격 차별화만으로 는 경쟁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문학이 경영의 새로운 돌파구로 등장했다." 라고 강조하 고 있다. 또한 서점에 갔을 때, 인문학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 칸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2010 년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는 기 염을 토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관계자는 1981 년 교보문고 개점 이래 인문 서적이 연간 종합 베

국내 인문학의 위기와 그 원인, 그리고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극복방안

오기하(영어 · 영문 10)

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처럼 인문학은 분명히 재조명받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인문학의 모습은 어떠한가. 재 밌게 잘 포장된 인문학 서적 말고, 기업의 이윤창 출 도구로써의 인문학 말고, 실제 인문학 그 자체 의 모습은 어떠한가? 인문학의 범위는 어디까지이 며, 인문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인가? 진짜 인 문학은 잘 포장된, 실용적인 인문학이 아니다. 그 것이 인문학의 하나의 발전 형태는 될 수 있다. 또 한 그런 형태의 인문학은 현재 분명 재조명받고 있 다. 하지만 실제 '학문'으로서 인문학은 아직 그렇 지 못하다. 인문학은 꽃과 같이 빛나는 학문은 아 니지만, 그 꽃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양분 같은 학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인문학이 여러가지 이유로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인문학의 몰락이 가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보다 풍요 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내 인문학의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 또 극복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자는 국내 인문학적 위기를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인 복합적인이유로 판단했으며, 그 중 교육제도의 문제가 가장크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한 인문학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어다뤄보고자 한다.

인문학의 위기 및 극복방안에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안상현(2010:138–147)은 인문학적 근본주의의 위기를 언급하며, '저항적 인문학'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박규철 (2011:126–131)은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 비판적사고와 논리 교육의 대학 내부에서의 확산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김명주(2007:7–21)는 인문학의 위기극복을 위해 정신성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한숭동(2001:188–200)은 철학의 위기와인문학의 위기를 동일시하여 대학 교양과정에서의 철학 및 인문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인문학과 관련된 논문은 많이 있지만, 대체로인문학의 위기 및 극복방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연구들을 소개하였다.

2. 인문학의 위기와 심각성

우선 인문학의 위기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시장 경제의 도입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의견, 그리고 상실되는 인 간의 정신적 가치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 이 있다. 이 글에서는 후자의 관점으로 보다 절실 하게 인문학의 위기를 바라보고자 한다. 그 이전에 인문학의 위기라는 전제조건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2006년 9월 15일, 고려대 문과대학 교수들은 일명 '인문학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처한 위기 상황 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지적한다.

둘째, 인문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천명한다.

셋째,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이 왜 중요한지, 인 문학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 밝힌다.

넷째, 현재 당면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인문학자들의 임무는 무엇이고, 인문학의 진흥을 위한 사회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밝힌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인문학의 위기를 스스로 진단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글이나 의견이 산발적으로나마 나오기는 했지만, 이처럼 권위와 위상을 갖춘 대학 교수 집단에서 목소리를 합쳐 인문학의 위기 타개를 촉구하는 선언문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따라서 근래 인문학은 분명 재조명받고 있지만, 그것은 실질적인 학문적 차원에서 그 효과성이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012년 7월 24일 발표된 한국대학연구소 (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 소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 통계서비스 대 학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학 · 윤리학 25개, 프랑스어 · 문학 16개, 독일어 · 문학 13개 등 인문 계열 학과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공학계열 또한 설치 학과나 학생 수가 많 이 줄었지만, 이는 폐과보다는 통합 개념으로 학과 명이 바뀐 것으로 실제 공학계열 학과나 학생 수는 위의 표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연구소는 이러한 학과 변화 추이가 정부가 취업률과 충원율 을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로 반영하면서 학 문단위 구조조정이 강요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 다. 따라서 취업률 · 충원율 지표에 불리한 기초학 문은 통폐합을 하고, 실용 중심의 학과를 신설하거 나 증원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지난 달 열린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런 질문을 했다. 내년 방통위 사업 중 인문학과 연결된 내용은 무엇이며, 예산편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질문이다. 이에 관해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그런예산편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여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문학이 대학에서도, 정부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며 쇠퇴의 길을 걷고있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굳이 이러한 자료를 첨부하는 이유는 아직 사람들이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 그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서론에 언급했듯이 서점에는 인문학 관련된 책이 즐비하고, 기업들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갖춘 인재를 원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래 서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의 실제 위기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며, 오히려 시장 경제의 도입과 경쟁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극히 사회의 단면만을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정말 돈 버는 것이 삶의 전부인지 말이다. 세

상에는 돈보다 값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 중으뜸이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한 물음이며, 그 물음과 인문학은 바늘과 실과 같이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학 위에 그 어떤 학문도 놓여서는 안 될 것이며, 어떤 학문도 인문학을 떼어놓고는 찾고자 하는 답을 얻을 수 없다.

가치 혼돈의 시기에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인문 학적 자기성찰을 절실하게 요청하게 된다. 이는 대 학 내의 '인문학 위기' 담론에도 불구하고 대중사회 의 일각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절박한 요청'이 이어 지고 있음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인문학의 위 기 담론에도 불구하고 '독서 시장'은 여전히 인문학 서적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넘쳐나는 인문학 서적의 출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문학과 철학 의 빈곤에 대해 불평한다. 물론 대중들이 요구하는 쉽고 재미있는 인문학이란 여유로운 중산층의 '지 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당의정(糖衣錠)' 인문학 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단순한 '인문 학적 지식'에 대한 갈구만이 아니라, 현재적 삶에 대한 깊은 회의와 성찰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해 주는 '인문정신'에 대한 본래적 욕구가 깊이 내재해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인문학적인 자아성찰 을 절실히 필요로 하며, 인문정신에 대한 본래적 욕구를 깊이 가지고 있다. 이것이 위에 말한 인간 이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한 물음이다. 따라서 인 문학의 위기는 비단 인문학 자체만의 위기가 아닌, 인간 자체의 위기이다. 다시 말하지만 서론에서 인 문학의 재조명으로 소개한 부분은 진정한 인문학 의 모습은 아니다. 대중들이 요구하는 쉽고 재미있 는 인문학은 잘 포장된 인문학에 불과한 경우가 대 부분이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인문학? 그것도 진 짜 인문학은 아니다. 기술과 조합하기 위해 인문학 적 요소를 이용했을 뿐이다. 따라서 정말로 인문학 이라 부를만한 것에 대한 위기상황은 여전히 상존 한다. 이러한 인문학의 위기상태가 지속된다면 사 람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불균형 상태에 빠지기 쉬우며 그것은 사회 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3. 국내 인문학의 가파른 몰락과 그 원인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중요한 인문학이 위기의 길을 겪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특히 한국은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왜냐하면 그 몰락의 추세가 너무나도 가파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인문학의 몰락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로, 급격한 경제성장 안에서 인문학의자리가 없었다는 것. 둘째로, 지성의 중심에 서있는 대학생들이 인문학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인문학 교육 자체도 실용적인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급격한 경제성장이 어떻게 인문학의 몰 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자. 소위 '한 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는 빠른 시간에 경제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소중한 것을 잃었다. 그 중 하나가 인 문학의 몰락이다.

이렇듯 '인문학의 위기'는 세계화 자본주의의 역 사적 전개의 필연적 결과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초 기의 '물질적 생산' 중심의 산업자본주의 단계를 넘 어서 '대중문화'와 '서비스'의 상품화 단계를 거쳐 마침내 '학문과 정보와 지식의 상품화' 및 '인간 자 체와 몸의 상품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단계 를 거치면서 '인문학'은 최소한의 본연적 역할조차 현대의 자본주의 문화 일반을 다루는 새로운 학문 분야인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에 내어주고 '상 품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인문학 출판시장의 독점적 경향, 배타적 저작권법의 강화, 거대 출판사의 학술지 컨소시엄 형성과 유료화, 대 학교재 복사이용료의 일괄징수, 베스트셀러의 날 조와 스타작가군의 형성 따위가 그것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상품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인문 학은 가차 없이 시장에서 축출되며, 상품적 가치가 있는 일부 인문학 콘텐츠만이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 메커니즘에 의해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위 글처럼 인문학의 위기를 자본주의와 그 역 사적인 전개의 필연적인 결과로 보는 관점은 굉장 히 설득력 있다. 19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 리는 소위 '밥벌이'가 되지 않는 학문은 배워도 쓸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어른들 이 생각해온 방식이며, 우리는 그 사고방식을 의 심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 만 더욱 불행하게도, 현재 아이들이 꿈꾸는 장래희 망을 보면 이 사고방식은 또 다시 되풀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13세 에서 24세까지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2012 청 소년 통계'를 공개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 년 청소년(13~24세)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 1위는 28.3%를 차지한 '국가기관'이었다. 대기업 (22.9%), 공기업(13.1%)가 그 뒤를 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명하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한 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 즉 공무원을 선호한 다는 것은 금전적인 안정성과 직업 자체에 대한 안 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다. 아주 멀리 내다보는 훌륭 한 인생전략이라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정말 이런 생각을 청소년 때부터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정말 내 자녀가 열세살 때 부터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것을 뿌듯해하며 칭찬해줄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정말로 이 것은 그 아이들의 생각일까? 보통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보통 부모님과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받는 다. 위의 통계를 13~19세, 20~24세의 두 연령대 로 나누어보아도 여전히 국가기관은 부동의 1위를 차지한다. 연예인이 되고 싶은 청소년보다. 운동선 수가 되고 싶은 청소년보다 동사무소 직원이 되고 싶은 청소년이 많다는 뜻이다. 아마 13~19세는 부 모님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을 것이며, 20~24세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한창 꿈 많을 나이에 공무 원이 꿈이라니. 아마 13세 아이는 공무원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를 것이다. 다시 말 해, 그것이 정말 본인들이 꿈꿔온 하고 싶은 일이 냐 하면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분명 드물다는 것이 다. 하지만 7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돈 되는' 학문, '돈 되는' 일에 대한 세뇌가 학생들로 하여금 본인 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용기를 잃게 만 들고, 돈이 안 되는 인문학은 자연히 후순위로 밀 려나는 것이다. 이는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다. 대체로 꿈보다 사는 것이 먼저이지 않은가. 또 한 꿈을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으로 풀기를 강요받 는 요즘 아이들이 불쌍한 것이지 여기서 인문학의 위기를 논하는 것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

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데, 과 연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입김과 사회 적 분위기에 밀려 인문학 배우기를 포기하는 것일 까? 만약 진실이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인문학의 위기라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두 번째 이 유에서 한국에서의 인문학의 위치를 더 극명하게 알수있다.

한국에서의 인문학이 더 가파르게 몰락해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대학생들의 인문학 기피 현상 이다. 이는 물론 첫 번째 이유와도 맞물린다. 한국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06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 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대기업 취업 률은 공학계열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 경계열도 30% 이상으로 높게 집계되었으나, 인문 계열은 21.1%로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 라서 어느 대학을 보나 문과계열의 경우 상경계열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이해가 된다. 취업 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학과이기 때문이다. 실 제로 어느 회사든 그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싶어도 경영학 전공이 아니면 그 기회를 잡기가 힘들다. 또한 대부분의 문과대학 또한 상경계열에 가장 많 은 투자를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보나, 대학 내 분위기로 보나 학생이 상경계열에 진학하는 것 을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서울 내 주요 4년제 대학에서는 상경계 열이 인문대학 중에서는 단연 입학성적이 가장 높 다. 이와 관련하여. 인문학의 위기를 다른 측면에 서 볼 수 있다. 바로 유능한 학생의 유입이 힘들다 는 점이다. 수능 성적이 바로 학생의 능력과 연결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학구 열과 성실성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상경계열 등 입학성적이 높은 학과에 비해서는 능 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적성에 맞는 학생의 유입이 힘들다는 점이다. 인문계열의 학과는 보통 성적에 맞추어 가 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애초에 철학이 좋아서, 문 학이 좋아서, 심리학이 좋아서 입학하려는 학생들 도 물론 많지만, 그들에게 만약 더 좋은 성적이 주 어졌다면 다른 학과를 선택했을 이들도 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통계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 는데, 지난 해 구인 · 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대학 생 954명을 대상으로 '희망직업-전공 일치 여부' 를 조사한 결과 '일치하지 않는다.'가 41.4%로, 10 명중 4명은 희망직업과 전공이 불일치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기회가 된다면 전 공을 바꾸고 싶은가'에 대해 52.8%의 학생이 전공 을 바꾸고 싶은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전공에 대한 불만이나 전공 변경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은 문과 계 열에서 인문 계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역시 본인이 원해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비율이 다른 학과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필자의 경우도 주변 학우들에 말에 가끔 놀랄 때가 있는데, 본인이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온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재외국민 중에서는 더러 찾 을 수 있으나, 특히 수능을 보고 입학한 학우들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 심지어 어떤 학우의 경우 '영 어'를 잘하고 싶어서 '영문학과'에 왔는데 본인이 생각한 수업내용이 아니라 싫다고 말하는 것을 보 았다. 이는 본인의 무지함을 본인 스스로 홍보하는 격이다. 이처럼 필자 주변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영 문학 자체에 흥미가 있어서 온 학생도 드문데다가,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도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 인다. 조금 자극적으로 말해서 다른 학과에 비해 머리도 안 좋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는 다는 뜻이다. 이처럼 지성의 중심에 서있는 대학생 들, 즉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인문학 배우기를 기 피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인문학이 몰락하 는 가장 크고도 중요한 이유이다.

마지막 이유로는, 인문학 교육 그 자체가 가지 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바로 인문학 교육 자체가 실용적인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 자가 재학 중인 한국외대 영문학과의 예를 들어보 자. 현재 1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만 보더라도 Practical English Writing, 드라마 청취 및 번역,

Text English Grammar 등 인문학과 직접적 관 련이 없는 과목들이 많다. 또한 최근에 한국외대 영어대학은 하나의 학과로 통폐합이 되었는데, 이 것은 인문학의 몰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기존에 영문학과, 영어학과, 영어통번역학과 이렇 게 세 개의 과로 나눠져 있었던 한국외대 영어대학 은 2014년부터 '영어대학 영어학과' 하나의 학과 로 통합되어 운영된다. 영어학과나 영어통번역학 과는 실제로 영문학보다는 굉장히 실용적인 목표 로 개설된 학과이며,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영문학과가 영어학과로 흡수 · 통 합됨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굳이 실용적이지 않 은 영문학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아마도 2014년 이후의 입학생들의 경우, 기 존의 영문, 영어, 영어통번역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과연 누가 기존 영문학과 의 수업을 원해서 들을지 의문스럽다. 대학부터 인 문계열 학과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는 결정들을 내리는 판에 어느 누가, 과연, 어 떤 자신감으로 당당히 인문학도가 되겠다 말할 수 있겠는지 걱정이 된다. 결국 인문학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육의 중심인 대학 그 자체이다.

4.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인문학 의 위기 극복

그렇다면 이러한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 는 방안은 무엇일까. 필자는 교육제도의 선진화라 고 생각한다. 인문학의 위기에는 단연 선진화되지 못한 교육제도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교육은 당장의 효율성만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최재 성 국회의원의 글이다.

OECD가 올해 초 발표한 「OECD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현행 한국 교육의 명암이 그대로 드러나 고 있다. 한국학생들은 OECD가 실시하는 국제학 업성취도평가(PISA)의 거의 모든 과목에서 최상 위권 학업성취도를 나타냈다. 반면, 사교육에 대한 지출은 GDP 대비 2.9%로 OECD평균인 0.3%의 1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과론적 입장에서 버락 오마마 미대통령마저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자랑 하는 한국의 교육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천문학 적인 사교육비와, 주당 50시간이 넘는 학습시간,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성취도로 이어지지 못하는 연속성의 부재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교육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투자 하여 초 · 중등교육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성 취도를 얻었지만, 이것이 고등교육의 학업성취도 로 이어지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구조' 인 것이다. 발제자는 비효율적인 교육 구조가 파생되는 근본 적 원인을 한국의 교육체제가 '극단적 경쟁교육 모 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바로 한국의 교육이 당장의 효율성을 채 우기만 급급하고 그 지속성을 늘리는 것에는 별 관 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이 중시된다는 것은 반대로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사 고력은 무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항상 예습을 한다. 우리는 그것을 '선행학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선행학습은 장기 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절대 긍정적인 방법이 아니 다. 특히 시중에 출판되는 교과서 분석 참고서나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전과와 같은 것들은 문제 에 대한 답안지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학 생들의 창의력이나 사고력 신장에 전혀 도움을 주 지 못한다.

여기서 더욱 좋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교사들에 게 선행학습을 해오는 학생들을 칭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학 생이 선행학습을 한다는 것은 교수의 수업권을 방 해하며 다른 학생들의 생각할 권리, 알 권리를 박 들 정말 공부를 못하는 나라가 아님을, 반대로 좋

탈하는 행위이다. 한 학생이 답을 안다고 해서 모 두가 답을 아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학생이 선 행학습을 하고, 교사가 원하는 답을 즉시 말한다면 나머지 학생들은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조 차 상실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렇게 불합리한 행태 를 교사가 칭찬까지 해준다면, 학생들은 그렇게 하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더더욱 선행학습에 열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단순히 교사에게 칭찬을 받고자 함이 아닐지라도,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해 야만 하는 이유가 생긴다. 만약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뒤쳐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 육은 엄청나게 극단적인 경쟁체제에 놓여있다. 이 러한 극단적 경쟁교육의 형태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을 상상력, 창조력, 사고력 등을 배제한 단순 암기, 수동적, 주입식 교육 형태에 길들여지게 만 든 것이다.

이러한 상태로 대학에 입학한 많은 학생들은 대 학의 강의, 시험, 공부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 기도 한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답이 있는 공부를 하였지만, 대학에서는 답이 없는 공부를 하는 경우 가 생기기 때문이다. 발표 수업도 익숙할 리가 없 다. 교수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학생 마저도 그것이 답이 아닌 본인의 생각일 뿐이니 자 신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 다. 인문학적인 사고는커녕, 그냥 '사고'라는 행위 자체에 익숙하지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 문학을 배우고 싶거나, 인문학에 매력을 느끼는 학 생은 자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제도를 보다 선진화할 필요 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변화가 아 닌 최소 20년 이상을 내다 본 장기적인 변화이다. 선진화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20대 후반~30대 초반에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려면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다 른 선진국의 경제를 배우듯, 교육 또한 선진국의 교육을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국제학업 성취도평가(PISA)에서 한국 학생들이 모두 최상 위권을 차지했다는 언급을 하였다. 같은 평가에서 언제나 중하위권에 맴도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독 일이다.

독일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알파벳을 배우고 몇 가지 단어를 익히는 데 1년. 1부터 20까지 덧셈, 뺄셈을 수없이 반복하는데 또 1년. 아이들은 손가 락을 사용하든 계산법을 혼자 익혀야 한다. 구구단 과 같은 계산법을 미리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는 바 로 '더디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자기만의 방법을 찾 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꼭 넘 어야 하는 자격시험, 자전거 면허증과 수영 인명구 조 자격증. 지식만큼 중요한 것은 안전과 여가다.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교육의 목표 아 닌가? 한 때는 주입식 국민교육 제도와 선진 학습 법의 수출국이었던 독일. 전쟁과 우월주의, 그 역 사의 반성에서 다시 출발한 교육. 그리고 마침내 얻은 해답. "1등 다툼은 필요 없다. 우리의 교실은 한두 명의 뛰어난 사고보다 모두의 깊이 있는 사고 를 워하다."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이 방송 을 본 많은 학생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독일을 굉 장히 부러워하는 글들을 남겼다. 당연히 부러울 것 이다. 공부에 관해서는 정말 안해본 것이 없는 한 국 학생들이 아닌가. 인생은 공부가 아니니 차라리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 다고들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독일이 정말 '공부 못하는 나라'인가? 독일은 탄탄한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당당히 국가 경쟁력 세계 5위에 올라있는 강국이 다. 또한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로 많은 물리학상 수상국가이며, 전체 노벨상 수상 자는 무려 95명에 이른다. 최근 20년만 보더라도 21명이 노벨상을 수상하였으니, 앞서 언급한 국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다 한

은 성적을 얻었다고 하여 공부를 잘하는 국가가 아 님을 말해준다. 물론 노벨상 자체가 공부를 잘하 고 못하고를 판단하는 근거는 될 수 없지만, 누구 나 부러워할만 한 성과는 되지 않겠는가. 〈독일 교 육이야기〉의 저자인 박성숙은 그의 저서에서 독일 교육에 대해 경쟁 없이 다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 는 것이 결국 경쟁력 있는 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았 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경쟁을 위한, 생존 을 위한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 공존을 위한, 성장 을 위한 그런 교육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인문학의 위기는 이러한 교육제도의 개선. 학생들의 사고의 변화 및 사고력의 신장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을 것

하지만 교육제도의 개선은 우리의 소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 과 노력이 들겠는가. 따라서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 해서는 교육기관과 정부 등 각 처의 관심과 지원 이 필수적이다. 미국 시카고대 총장인 로버트 짐머 는 2010년 8월 방한해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 조 찬 강연에서 대학 교육에서의 비판적 사고력을 강 조하였다. 그는 많은 노벨 수상자를 낸 시카고대 경제학부를 예로 들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고 와 전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따지게 하고 상상력을 자유롭고 무한하게 발휘해 대안을 찾도록 한다"며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자 학부생이 인문학을 배울 수 있도록 힘쓴다"고 덧붙 였다. 이처럼 대학 차원에서 인문학을 장려하는 것 이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겠다. 인문학이 아니더 라도, 적어도 학생들이 모든 것에 대해 '본인'의 생 각을 가질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능력과 창의적 문 제 해결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 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인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는 있다. 그 중 하나의 예로 '인문학 대중화 사업' 을 들 수 있다. 이는 정부사업으로, 다양한 인문강 좌 및 행사를 지원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 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 서 2007년부터 실시되었다. 올해는 전국 60여개 기관에서 무료 시민 인문강좌가 운영되었으며 공 연ㆍ전시 등 일상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인 문주간'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사업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더욱 이 '인문학'을 '대중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지속적인 홍보 또한 필수적일 것이 다. 또한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사업에 관심을 가지 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인문학의 위기를 극 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본인들의 삶의 질 을 높이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국내 인문학의 위기와 현황, 그리 고 극복방안에 대해 논해보았다. 국내 인문학은 급 격한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돈이 되지 않는 학문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시선과, 그에 따른 학생들의 기피현상, 그리고 인문학 자체의 실용적 변모로 몰 락의 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 필자는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경쟁적 체계의 현 재 교육제도 대신, 선진국의 교육제도를 본받아 장 기적 안목으로 개선시켜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인문학은 본래 좁은 의미에서 문 · 사 · 철(문 학, 역사, 철학)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순 수과학을 제외한 모든 학문을 의미할 수도 있는 굉 장히 광범위한 학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물론 굉장히 다양한 방법 에서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교육제도 의 개선을 통해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필자는 교육제 도를 개선함으로 우리는 인문학의 위기 극복 이상 의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학 등 각 처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이 글에서는 교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 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독일을 교 육 선진국의 예로 들어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독일 의 교육 커리큘럼, 교육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지는 않았다. 또한 선진국형 교육제도로의 개선 을 주장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형태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본래 이 글은 인문학의 위기와 그 해결방 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에 의거하여 교육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논외 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연구되지 않은 사항이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연구되어 좋은 방향 으로 응용 및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과학분야 당선작

유럽연합의 문화수도 프로그램 분석: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종호(동유럽 · 세크어 12)

1. 서론

2015년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문화 통합정책 인 문화수도 프로그램(Capital of Culture)이 출 범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85년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50개가 넘는 도시 가 문화수도로서 선정이 되었고 매년마다 선정 과 정이 진행 중이다. 문화수도프로그램은 그동안 선 정되었던 도시들에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 을 끼쳤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로 매년마다 많은 유럽의 도시들이 문화수도로 지정되고자 유럽위 원회에 지원서를 넣고 있고 심지어 유럽연합에 속 해있지 않은 러시아나 터키의 도시가 신청을 하고 문화수도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2004년부터 EU에 들어온 신생 가입국인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문화수도프로그램은 유럽연합의 경제적인 지원 을 받는 동시에 도태되었던 그들의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1990년대 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동유럽에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시 장경제 체제의 급격한 유입이 이루어졌고 유럽연 합 체제에 편입되고자 했던 그들에게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통합과정 에 있어 한계를 느꼈다. 하지만 문화는 유럽인들에 게는 서로 간 공유할 수 있는 역사적, 지리적 관계 가 존재하였기에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부 분을 교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주도하고 있는 문화정책은 동유럽과 기존 회원국 간의 격차를 좁히는 동시에 이들 지역을 유럽 전역 으로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요소로 여겨졌 다. 그중 문화수도 프로그램은 기존 산업의 쇠퇴로 인해 황폐화 되어가던 그들의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기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유럽문화수도 프 로그램은 유럽통합 과정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문화 정책 중 하나이기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고볼수있다.

이 글에서 저자는 문화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 통합 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문화수도프로그램에 참여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결 과물에 대한 분석을 중점으로 구성해 나갈 것이다. 글의 진행 순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수도 프로그램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개관과 함께 이 프 로그램을 유럽연합의 주요 문화정책으로서 추진 하는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거의 선발 방식과 현재의 선발과정에 비교하면서 현재의 선 발과정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두 번째로 문화 수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동유럽 도시들이 어떠 한 공통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그리고 이들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각기 어떠한 특성을 지녔고 이를 통해서 도시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서술할 것이다. 동유럽 국가의 도시 중 문화수도 로 선정된 대표적인 사례로 2012년 개최지였던 마 리보르에서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어졌으 며 이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도시에 어떤 이익을 가 져다주었는지를 설문조사와 객관적인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해 파악해 보겠다.

2. 문화수도 프로그램 개관 및 선발 과정

문화수도프로그램은 1983년 그리스 델피 에서 진행되었던 각료이사회에서 당시 그리스 의 문화부 장관이었던 멜리나 메리꾸리(Melina Mericouri)의 제안과 함께 문화 영역에서의 실 질적인 통합 노력을 행하자는 목적에서 발표된 '유럽연합에 관한 선언(Solemn Declaration on European Union)'을 토대로 시작되었다. 이 제안 은 문화담당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되었고 유럽 내 에 공통적이면서 각 국가 및 지역이 지니고 있는 문화를 전파하는 동시에 유럽연합 국민들 간 친밀

시기별 문화수도정책변동 내용

		717	15 641 70 760 40	
		도입기 (1985-1992)	제1차 변동기 (1993-2004)	제2차 변동기 (2005-2011)
T100	결정 절차	정부간 회의	공동결정절차	일반결정절차
정책 결정 구조	공식적 참여자	유럽공동체 문화부 장관	-문화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와 지역위원회	-문화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와 지역위원회
	주최국 선정	국가 명 기준으로 알파벳 순에 따름	-국가 명 기준으로 알파벳 순에 따름. -비회원국도 선정 가능	 국가 명 기준으로 알파벳 순에 따름 비회원국은 선정 불가, 신.구 회원국을 고려하여 매년 두 곳 지정
	도시 지정		7 1 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예비지정) -선정위원회가 2가지 기준 하에 후보도시를 평가
			주최국 정부가 지정	주최국 정부가 후보도시 선정,일반결정절차에 의해 지정
	도시 지정 및 평가 기준	별도의 규정 사항 없음	-유럽 예술가 및 시민 간 상호 인식과 교류 촉진, 역사적 유산 보전과 도시 개발, 관광 산업과 시청각영상산업 활용	-2가지 기준으로 'European Dimension', 'City and Citizen' 을 제시
	평가	별도의 규정 사항 없음	개최도시의 사후 보고서 및 집행 위원회의 평가서	-별도의 평가 및 자문위원회 구성
	기타	행사 전반을 주최국 문화부가 주관	-연합의 예산으로써 보조금을 지원받음	-'유럽문화도시'를 '유럽문화수도'로 개칭 -지원금 인센티브제 도입

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식으 로 추진되었다. 또한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서 문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을 내고 문화영 역에 명백히 집중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정책의 탄생과 동시에 문화도시 프로그램에 대한 초국가 적인 관리체계가 등장 할 수 있었다. 1985년 '유럽 문화도시(European City of Culture)' 첫 번째 도 시로는 아테네가 선정되었다. 1999년 이전까지 회 원국들 중 단일 도시만 선발되어오다가 2000년부 터 개최지가 두 도시 이상으로 선정될 수 있었으며 2005년 이후에는 다수의 신생 가입국들이 동참하 면서 프로그램을 더 다채롭게 만들었다. 그 동안 선정되어 왔던 도시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의 삶의 질 향상, 문화산업 증대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도 하였지만 유럽위원회의 불충분한 예산 부족, 프로그램의 목적 불확실성 그리고 성과 평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 내 보이기도 하였다.

위의 표와 같이 유럽문화수도프로그램 선발 에 대한 변동 과정은 세 번의 시기로 나눠질 수 있 다. 1985년부터 1992년 까지는 '문화도시프로그 램'의 도입기로 이사회의 결의문에 맞춰 지정된 국 가가 모든 것을 스스로 운영하는 시스템이었고 결 정 절차는 각국 정부 간의 회의를 통해서였다. 따라 서 별도의 평가 기준이나 보고서도 전무하고 특별 한 지원 없이 개별 국가의 문화부가 진행하였다. 그 러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된 시기를 기준으 로 하여 여러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강조되었다. 우 선 결정 참여자는 각국의 문화부장관에서 유럽위 원회,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그리고 지역위원회로 주체가 바뀌었다. 특히 1999년에는 개최지 선정 권 한을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로 까지 확대 시켰으 며 이에 따라 정부 간 협의 방식에서 앞서 언급한 주 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로 바뀌었다. 지정 및 평가 부분에 있어 서도 일정 기준이 설정되었고 유럽위원회에 의해 사후 평가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유럽연합 예 산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 이었다는 것이 한계점이지만 이러한 변동이 결정 과정에서 주체들의 참여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중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 부 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하는 시기였던 2차 변동 기는 기존에 쓰이던 '유럽문화도시'라는 명칭을 현 재의 '문화수도프로그램'으로 개칭되었고 이러한 명 칭이 정식으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는 2005년 아일 랜드의 도시인 코르크에서 부터였다. 개최국 선발 시에 기존 가입국의 도시 1곳, 신생 가입국의 도시 1곳, 총 2곳으로 늘어났다. 대신 중동부 유럽의 신 생가입국들을 고려하여 이전처럼 비회원국이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을 없앴다. 선발 과정에서는 선정 절 차의 합리화를 위해 예비 지정 도시와 최종 지정 도 시를 따로 설정하여 심사하였다. 사후 평가기준은 문화수도 프로그램이 다양성 속에서 공통의 정체 성 확산에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크게 '유럽적 차 원 (European Dimension)'과 '도시와 시민들(City and Citizens)'의 두 개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지원금 부분에 있어서도 선정기준에 부합되어 개최지로 선정된 도시에 대해서 '문화수도' 명칭을 붙여주고 동시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를 도입함으로써 선정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 어 주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도시 선정기준도 기존 의 만장일치제에서 2005년부터 순환시스템으로 바 꿔 해당연도에 문화수도로 지정된 도시의 회원국에 게 지정 권한을 부여하였다.

현재 개최지 선정은 2차 변동 시기에 변경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행정적인 관할은 유럽위원회가 맡으며 선정과정에 있어 유럽의회와, 지역위원회가 협력 및 조언을 하고 문화수도 지명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각료 이사회가 지니고 있다. 문화수도 지명 시스템을 크게 나누면 선정위원단의사전설정, 공모도시들에 대한 최종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료이사회의 지명 및 확정 발표로 3가지단계가 있다. 사전선정단계에서 공모하고자 하는도시들은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필요한 정보및 자료를 취합하고 프로그램 계획을 선정위원회에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선정위원회가 제시한

모든 질문에 다 답할 의무는 없지만 향후 최종 결정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인 답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희망하는 도시들은 각 국 정부가 공표하는 시기에 맞춰 신청서 및 각 도시 가 계획한 프로그램 개요를 제출하고 각국 정부는 희망 도시들의 신청서를 유럽위원회에 보낸다. 선 정위원단의 구성은 유럽의회, 유럽위원회, 각료이 사회에서 각 2 명 씩, 그리고 지역위원회에서 1명으 로 총 7명을 임명한다. 선정위원단은 각국에서 보 내온 신청서를 취합하여 정리하고 이를 정리한 보 고서를 유럽의회에 보내고 유럽의회는 검토를 거친 후 유럽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게 된다. 그리고 유 럽위원회는 권고안을 각료이사회에 보내 각료이사 회가 최종적으로 개최지를 결정하게 된다. 유럽문 화수도 선정은 1999년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합 의한 7가지 기준에 따르고 있다. 선정된 항목들은 문화 및 예술 이벤트 조직력과 홍보능력, 개최도시 문화와 역사 홍보 능력, 예술적 혁신을 창하는 활동 및 조직 능력, 새로운 문화 활동 조직 능력, 청년층 참여 유도하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용능력, 관광산 업 및 고용창출과 같은 경제적 활동 기여 능력 그리 고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계획을 조화할 수 있 는 능력을 보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기준들은 유럽문 화수도 프로그램에 신청한 개별 도시들이 유럽통합 차원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조직하였는가. 유럽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을 부각시켰는가, 그리고 유럽 시민들의 참 여를 어떻게 유도 시킬 수 있고 향후 도시의 발전과 유럽연합 통합 과정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에 대해 평가 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동유럽 국가의 도시들에서 진행된 문호수도프로그램의 특징 및 주요 내용

그 동안 문화수도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동유럽 국가의 도시는 현재까지 총 9개로 참여한 도시로는 2000년을 시작으로 크라코프(폴란드)와 프라하(체코), 2007년 시비우(루마니아), 2009년 빌니우스(리투아니아), 2010년 뻬치(헝가리), 2011년 탈린(에스토니아), 2012년 마리보르 (슬로베니아), 2013년 코시체 (슬로바키아), 2014년 리가(라트비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삘센(체코)가 있다. 이들도시는 모두 2004년이나 2007년에 EU에 정식으로 가입한 신생국들로서 과거 소련을 필두로 하는 공산권 세력의 주요 국가들의 도시이기도 하다.

공산주의가 붕괴하고 시장 자본주의를 받아들이 게 된 이들에게 곧바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닥쳤다. 특히나 2차 산업의 쇠퇴와 함께 주 요 산업 기반을 주로 공업에 의지하던 동구권 국가 들에게는 큰 타격을 입혔으며 이에 따른 산업도시 들의 쇠퇴와 황폐화가 나타났다. 이 시점에서 그들 에게는 유럽연합의 지원 및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 다.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써 문화수도프로그 램은 문화 분야를 통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도모 하고 낙후도시를 소생시킬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 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은 이를 통하여 그들이 공산 권에 속하던 시절 물질적인 형태로나 정신적인 형 태로 지니고 있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적 잔재를 청산하고 유럽의 문화, 사회영역 그리고 가치를 더 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유럽 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을 토대로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을 진행하면 서 이와 함께 문화도시 프로젝트를 이들 국가의 도 시에서 추진했다. 이러한 지역개발 사업과 문화사 업의 병행 추진은 유럽연합 내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인 동유럽 국가와의 경제적 차이를 좁히고 사회문화적 가치에서의 이질감을 없애면서 통합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문화수도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부터 동유럽 국가들은 그들의 경제 사회적 문제 뿐 만 아니라 통합 차원에 있어서도 많은 위기를 겪고 있었다.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면서 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연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었지만 서유럽과 동유럽에 대한 관념적으로 갖고 있었던 구별은 없어지지 않았다. 서유럽 국가들은 이들을 같은 유럽 국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이 유럽 국가로 발돋움 하는데

주요 목표를 두었고 이에 따라 도시 구조와 환경 자 체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의 기반 구조와 현대적 인 특성을 동시에 갖춰줘야 하는데 이는 동유럽의 작은 도시들에게 특별한 지원 없이는 매우 힘든 작 업이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진행 되기 전부터 공산정부 붕괴 이후 동유럽 국가에서 의 도시 재개발과 부양 정책은 1990년대 초반에서 야 이루어졌고 주로 도시 중심부를 위주로 이루어 졌다. 비록 이러한 정책이 도시의 상업과 거주 지 역 선진화에는 큰 효과를 보았지만 사적 개발 분야 (private development sector), 부동산 시장 자본 주의 요소들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해 정부는 도시 와 시장에 대한 관리나 통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주요 도시 중심부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 어났고 이는 주변부 도시들과의 양극화를 발생시켰 는데 이는 과거 사회주의 시절의 중앙집권화된 권 력구조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도시들은 비대칭적이고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문화수도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 에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 중 이 도시들이 가장 많 은 관심을 보였던 것은 도시 시설 및 구조에 대한 재 건축과 신축이었다.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 는 시민들이 더 나은 도시생활과 위생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환경이 관광객들을 끌 어들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도록 도시의 많은 공공시설들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실 행했다. 이러한 계획들은 시비우, 빌니우스, 뻬치, 탈린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하는 차원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버려진 장소들과 재원을 완전히 탈바꿈 시키 는 큰 규모의 계획 또한 만들어졌다. 대다수의 도시 들에서 이 계획은 진행되어졌으며 버려진 공장, 창 고, 항구 주변 건물들을 새로운 문화적 중심지, 즉 극장, 박물관, 여가 장소로 개혁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도시 개발 및 혁신 계획과 정책설정 부분에 있어서는 창조성이 가장 중요한 기제로 여겨졌다. 또한 쇠퇴한 지역과 분야에 새로운 문화적 기반 구 조를 세우는 것 역시 주요 정책 중 하나였다. 사고 방식과 이데올로기는 동유럽 국가들이 들어오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산업 분야의 축소로 인해 쇠 퇴하던 도시들을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구조 (culture-based economy)로 만들어주고 또한 이 를 홍보하는데 문화수도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는 2010년 선정지인 뻬치를 예롤 들 수 있다. 채광산업의 축소와 쇠퇴로 경제적 으로 큰 어려움을 겪던 뻬치는 문화수도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형 성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수도프로그램을 통한 도 시 변혁 자체가 도시 이미지 자체를 재편성 해버리 는 경우가 있다. 탈린의 경우 이전 소련의 지배 시 절에만 해도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 민간인이 절대 로 접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문화수도프로그램 진 행을 바닷가 자체에 중심을 두었고 이전까지만 해 도 버려져 있던 이 지역을 문화,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고 탈린의 로고와 슬로건 이 미지도 이 바닷가를 배경으로 만들었다. 이는 기존 공산주의 국가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지닌 도시로 탄생을 시킨 것이다.

동유럽 국가들에서 문화수도프로그램을 진행하 게 되면서 유럽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의미 가 부여되었고 더 나아가 유럽문화의 영역 자체도 확장되었다. 동유럽 국가들의 선정도시들은 신청과 홍보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그들의 과거 사회주의와 관련된 역사와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요소들에 대해 서 강조하곤 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은 현 재 자유주의 국가로의 변환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 이 바로 통합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과거 사회 주의의 역사도 유럽연합의 역사이며 이에 따른 유 산, 경험 역시 유럽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탈 린의 사례에서는 이들이 문화수도로 지명될 수 있 었던 데에는 그들의 50년간의 사회주의 지배역사 와 이러한 지배가 에스토니아인들의 관념에 큰 오 점을 남겼다는 것을 인정한 부분을 계획안 주요 구 성이 되었다. 이러한 부분이 에스토니아가 유럽으 로의 회귀에 큰 관심을 두고 있고 유럽의 새로운 정 체성 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평가 했던 것 이다. 문화수도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동유

럽 도시들은 이러한 암울한 역사들을 전시회, 박물 관, 기획전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와 동시에 삘센, 리가, 코시체 와 같이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동 유럽 도시들은 그들의 도시가 서구와 동구를 연결 하는 교차로라는 점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동시 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 스스로 유럽 문화의 중 재자 역할을 자청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문화수도 프로그램이 이들 국가에서 진행되면서 도시 이미지 자체가 서구화. 즉 서유럽적 가치로 균등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비록 다양성 속 에서의 통합이라는 유럽연합의 가치 하에서 지역적 특색과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견함으로써 이를 도시 이미지로 확대 적용시키려는 노력도 존재하였 지만 결국 도시선정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획일화된 도시 환경 조성과 서로 유사한 프로 그램의 구성이라는 결과만을 생성하는 것도 사실이 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다 수의 도시들이 경제적인 수익을 얻게 됨과 동시에 도시 기반과 시설, 환경을 선진화 할 수 있었다는 것 이다.

지금까지도 서유럽과 동유럽의 구별은 남아있으며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를 없애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만 한 작고 볼품 없는 동유럽의 도시가 유럽연합의 지원과 함께 문화수도프로그램과 같은 주요 유럽 문화 및 통합 정책들을 통해서 문화의 중심부가 되는 것을 보면 분명 문화라는 분야에서 통합은 파급효과가 훨씬 더크고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문화수도로 선발된 동유럽도 시 사례 평가 - 2012년 슬로베 니아 마리보르

마리보르는 슬로베니아의 동쪽에 위치한도시로 서 슬로베니아 내에서는 2 번째로 가장 큰 도시로 약십만명이상의 거주민이 살고 있다. 과거에 슬 로베니아가 구(舊)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해 있었 을 당시만 하더라도 연방을 이끄는 주요 산업도시 였다. 하지만 연방 해체 이후 산업의 쇠퇴와 경제 위기로 인해 마리보르 내에서는 실업률이 급증하였 고 산업이 해체되면서 경제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화수도프로그램에 선정된 그들로서는 도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마리보르가 내세운 슬로건은 순수의 힘(Pure Energy/ čista energija)으로 환경과 사회에 대한 문화의 책임 있는 태도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만들 어졌다. 이는 창조성과 함께 지속가능 개발 문 제, 평생교육, 민족 및 종교 간 화합, 그리고 사 회적 약자 배려라는 요소들이 문화수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마리보르 가 내놓은 신청서와 계획안의 주요 주제는 문화 정 체성에 관한 이슈로서 각기 반대되는 개념을 지닌 문화 주체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었다. 마리보르를 포함하여 유 럽의 예술은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의 역사였다. 하 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예술의 역할이 창조성 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주체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 리고 이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 장려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리보르가 내놓은 계획안의 요점 은 서로 각기 다른 문화정체성을 지닌 존재들 간에 다리를 놓아줌으로써 화합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념을 바탕으로 마리보르는 각종 주 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예술 분야의 조화를 계획한 프로그램 'Terminal 21', 과거의 역사와 기억들로 인해 묻혀진 구시가지를 회생시키는 프로그램인 'Town Keys',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인 'Urban Furrows', 장애를 가지거나 신체적인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편견과 차별을 깨고 그들이 예술과 문화에 동참할수 있도록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인 'Opportunity for all', 그리고 외국의 다른 여러 문화 관련 기관들을 다양한 문화간 교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Cultural Embassy'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마리보르에서의 문화수도프로그램은 초창기 에 불투명한 재정 계획, 조직 구성에 있어 엄격한 절차 및 과정, 상호간 협력의 복잡성, 파트너 협 약을 맺은 지역들의 지리적 치중, 그리고 계획안 과 프로젝트에 대한 지나치게 짧은 기한일과 턱없 이 부족한 인프라 구조 등의 위기가 있었다. 하지 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마리보르의 문화수도프로 그램은 여러 부분에서 성공적이었다. 마리보르와 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5개의 마을(Ptuj, Slovenj Gradec, Murska Sobota, Velenje, Novo mesto) 에서는 무려 405개의 프로젝트 하에서 5303개의 이벤트가 진행되었고 2012년 한 해에만 약 450만 명의 이 작은 도시를 방문하였다. 문화수도 프로 그램으로 방문객의 수는 작년보다 26.5% 증가하 였으며 그 중 협약관계를 맺은 마을들에 들르는 방 문객의 수 역시 12.5% 증가 하였다. 하루 방문객 의 비중도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61%증가 하 였고 6월만 봤을 경우에도 전년도 보다 92%가 증 가하였다. 그리고 방문객의 숙박 비율(overnight stay)도 전년도보다 20% 증가한 점을 미루어 보았 을 때 관광 분야에서의 수익 역시 크게 늘었다는 것 을 보여준다. 또한 홍보 및 마케팅 분야에서도 긍 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각종 미디어에 13.900 개의 출판물에서 언급되어졌고 국외 미디어에서 는 800번의 기사 및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400 여개의 미디어 매체가 프로그램 기간 동안 마리보 르에 상주해 있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2012년 의 문화수도프로그램을 통해 마리보르는 2.100만 ~ 2,900만 유로의 수익을 얻었으며 공공투자를 통 해 얻은 이익은 332만~399만 유로였고 대략 400 만 유로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12월에 마리보르 거주민들에게 행해졌던 설문조 사 결과 마리보르의 프로그램이 거주민들과 관광객 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는지 보여주고 있다. 설문조사 범주 중 '마리보르는 문화수도 프로 그램에 참여한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라 는 구문에 대한 점수평가에서 응답자들로 부터 평 균 4.36점(5점은 강력히 동의, 1점은 강력히 반대) 을 얻었다. 또한 문화수도프로그램으로 얻은 이익 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대외 홍보 분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행사 조직분야, 문화적 다양 성 경험 분야, 공동체 복지 분야 그리고 방문자 행 위 분야에 있어서는 고득점을 얻은 반면 공동체 삶 의 질 향상 분야에서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얻었다 (3.15).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복지 분야, 인 프라 구조 향상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 다(3.20). 문화수도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느 낀 부정적이거나 낭비된 사회적 비용 분야에 있어 서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이 가장 높았고 (2.69), 도시 내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증 가, 공동체 내 인구 혼잡과 같은 항목이 그 뒤를 따

설문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리보르 거주자들에게 문화수도프로그램은 사회적인 이익을 많이 가져다준 문화 사업이었고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유럽 전역에 슬로베니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비록 거주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증가, 삶의 질, 소득증가 및 공동체 자부심 강화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확연히 눈에 띄는 결과물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적어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거주자들에게 끼친 부정적인 측면은 거의 없었다고 응답했다.

5. 결론

랐다.

문화수도프로그램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각국의 도시들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동시에경제구조와 사회구조 자체에 문화적인 요소를 주입시켜 바꿔나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비록 유럽연합의 재정적 지원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개별 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부의 도시들, 더 나아가유럽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역할을 하게되었다. 유럽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는 매우 중요한요소이며 통합의 과정에서 회원국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다. 따라서 동유럽 국가들이 가입하기 직전에 지니고 있던 정체성과 공통분모는 더욱 확대되어져야 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유럽의 가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이들의 과제이다. 이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이고 이러한 관념을 실질적으로 추 진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중 주요 역할을 맡았던 프로그램이 바로 문화수도프로그램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통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자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정책들이 좌절되었고 오히려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도 그랬듯이 유럽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에 유럽연합의 통합 노력은 결코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이러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문화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매년마다 진행되고 있는 문화 수도프로그램에 유럽연합은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보이고 또한이를 다른 문화 프로그램이나 사회 정책과 통합시켜서 운영해나갈 수 있는 창조 능력이 지금 시점에서 요구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현재 후퇴하고 있는 통합 과정을 다시 진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공계분야 당선작

Hardness 농도가 중금속류 (Copper, Zinc, Lead)의 물벼룩 생태독성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하홍주(자연·환경 14), 황선경(자연·환경 14)

1.서론

환경중의 화학물질 농도는 1800년대 1차 산 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약 400여 종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이 매년 환경부에 보고되 어 관리되고 있다. 인간의 생활환경에서 날이 갈수 록 오염물질의 농도와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인간 에게 노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환 경호르몬류 그리고 중금속이 있다. 이 중 중금속류 의 물질은 수질 및 수생태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중금속이란 주기율표상의 아래 쪽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비중 4이상의 무거운 금속 원소로 환경에 배출되면 Food-Chain에 따라 최 종적으로 인간에게 축적되기 때문에 중금속에 의한 오염의 방지와 정화가 중요하다. 이처럼 중금속류 물질은 환경 내에서 생물축적(Bioaccumulation) 과 생물농축(Bioconcentration)을 야기시키고, 인 간에게 노출되면 축적되어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고 심하게는 불임, 신경계와 순환계 교란과 같은 많은 질병과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중금속류 물질에 의한 수생태계 영향을 판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계 내에 중금속 존재여부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생태계를 보호하고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생태계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중금속 물질에는 산업폐수에서 발생되는 Cu, Zn, Pb 등이 있으며, 이는환경부에서 배출허용기준에 기초해 모니터링되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중금속물질은 수계내에서 이온상태로 존재할 경우에만 독성영향을 발현시킬 수 있으며, 이는계절, 강수량변화에 따른 경도의 농도에 따라서 이온경쟁에 의해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경도가일정 수준의 농도까지 높아질수록 중금속의

렇게 1940년대에서부터 D. magna에 대한 독성연구는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물질에 대한 독성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미국 환경청인 EPA에서는 물벼룩에 대한 표준시험법을 제정하여, 수생태계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1977년 이후 생물검정 표준시험법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경도 변화에 따라 수계에서 중금속 이온의 생물독성발현 영향에 대해 Daphnia magna를 이용하여 급성유영저해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방법은 수질환경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고, Toxcalc 5.0 Program을 사용하여 NOEC(No Observable Effect Concentration), LOEC(Lowest Observable Effect Concentration), EC50(Median Effective Concentration), TU(Toxic Unit)을 산출하였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2.1. 재료

2.1.1. 물벼룩(Daphnia magna)

본 실험에서 사용한 물벼룩은 국제표준시험생 물종으로 지정된 큰물벼룩종(Daphnia magna)으로서 담수 무척추동물이며, 호수나 강 등에 서식한다. 평균 25℃에서 40일, 20℃에서 4개월 정도 서식한다. 부화된 후 성체가 되기까지 6~10일 걸리며첫 출산한 새끼는 사용하지 않고 3번째 이후 출산된새끼를 사용한다. 출산은 최초 출산 후 2~3일 마다출산을 하다.

2.1.1.1. 사육조건

물벼룩 실험과 배양방법 모두 EPA방법, 수질

Table 1. Composition of artificial water for Daphnia magna culture

Composition	Concentration (mg/L)
NaHCO ₃	192.0
CaSO4· 2H2O	120.0
MgSO4	120.0
KCl	8.0

독성영향은 일부 낮게 평가되어 진다.

산업폐수에서 나오는 중금속에 대한 Daphnia magna 독성발현농도를 Anderson이 발표함으로 생물검정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얻었다(Anderson, 1944, 1948). Breukelman은 염화제2수은(HgCl2)에 대한 Daphnia magna의 저항성차이 연구를 발표하였고, Braudouin(1974) 등은 Daphnia magna를 포함하여 동물플랑크톤류에 있어서 여러가지 금속에 대한 급성독성을 비교하여 D. magna sp. 민감도를 확인하였다. Shcherban(1979)은 여러 온도조건에 있어서 Daphnia magna의 중금속에 대한 독성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Freeman(1953)은 또 여러 가지 세제류에 대한 Daphnia magna의 저항성차이를 발표하였다. 이

환경공정시험기준을 참고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물벼룩은 인공담수를 만들어서 사용했으며, 조성은 Table 1과 같다. 배양액의 경도는 150±10mg/L as CaCO3, 알칼리도 121±10mg/L as CaCO3, pH 8.2±0.2로 조절 하였으며, 폭기를 시켜 DO가 8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였다. 배양하는 곳의 온도는 20±1℃, 습도는 50%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1,000~2,000 Lux, 16−h light/8h−dark 조건으로 광주기를 유지하였다. 시험생물은 태어난지 24시간 미만의 생물을 선별하여 분석하여야 하므로, 매일 사육수를 교환해주면서 시험생물을 확보하였고, 사육수를 교환할 때 마다 먹이를 공급하였다. 먹이양으로는 4 x 107cells/개체/일이 되도록 공급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물벼룩은 일정한 환경이 유지되

 $Table 2. \ Hardness \ of \ artificial \ water \ each \ concentration \ for \ \textit{Daphniamagna}(mg/L)$

•	Composition	100mg/L as CaCO3	200mg/L as CaCO ₃	500mg/L as CaCO3
-	NaHCO ₃	115 mg/L	230 mg/L	690 mg/L
	$CaSO_4 \cdot 2H_2O$	70 mg/L	140 mg/L	420 mg/L
	$MgSO_4$	70 mg/L	140 mg/L	420 mg/L
	KCl	4.8 mg/L	9.6 mg/L	28.8 mg/L

는 조건에서 사육하였으며, 민감도를 유지하기 위 해, 표준독성물질인 Nacl을 이용하여 정도관리를 하였고, 그 외의 화학물질에는 노출된 경력이 없는 생물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2.1.1.2. 먹이

물벼룩의 먹이로는 실험실에서 계대배양하

은 EPA, 수질환경공정시험기준을 참고로 하였다. 실험 환경은 사육 환경조건과 동일하게 유지시켰으 며, 시험 전후에 각 시험액과 대조구의 pH와 DO를 측정하였다. QA/QC를 위해 수질환경공정시험기 준에 따라 표준독성물질시험(NaCl. K2Cr2O7)을 수행하였다.

2.2.2. 독성평가

Table 3. Heavy metal EC 50 value for Daphnia magna

	Copper	Zinc	Lead		
EC 50	0.5 mg/L	11.63 mg/L	0.441 mg/L		

고 있는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를 사 용하였으며, 배양을 하기 위한 배지는 DIN배양액 과 vitamin stock용액을 사용하여 조류가 증식하 는데 도움을 주게 하였다. 배약액의 pH는 7~8로 하였고 온도는 25±1℃, DO 3mg/L이상, 빛은 약 4,000 Lux 이상을 유지시켰다. 광조건은 물벼룩 과 마찬가지로 16-h light/8h-dark로 하였고, 4 일동안 배양하였다. 배양후 1L용기에 분배하여 냉 장고에서 3일정도 가라앉힌 후 상등액은 버리고 P. subcapitata cell을 최대한 농축하여 먹이로 사용하 였다.

2.1.2. 경도수

본 실험에서는 경도를 달리하였을 때 중금속의 영향을 보는 실험으로 경도를 100, 200, 500mg/ L as CaCO3로 물벼룩실험을 하기 위한 물로 만들 었다. 경도를 맞추기 위한 조성은 Table2와 같으며 pH와 DO는 사육수와 같은 조건으로 하였다.

2.1.3. 중금속

실험에 사용한 중금속으로는 Cu, Zn, Pb를 사 용하였고, 3가지 중금속을 경도를 달리한 표준용액 에 각각의 EC50에 해당하는 농도보다 2배정도 높 은 농도로 사용하였다. 중금속의 EC50을 맞추기 위 한 농도는 Table3과 같다.

2.2. 실험방법

2.2.1. 독성실험

2.2.1.1. 급성유영저해시험

각각의 중금속을 경도 100, 200, 500 mg/L as CaCO3에 따라 농도구배(중금속 EC50농도의 2 배수를 100%라 기준으로 하여 100, 50, 25, 12.5, 6.25%)로 4개씩 50ml유리 비커를 준비한다. 대조 구로는 사육수만 넣은 50ml 비이커 4개를 준비한 다. 각각의 비커에 생후 24시간 이내 태어난 새끼 물벼룩을 5개체씩 넣어 24시간이 지난 후에 유영 저해 개체수를 기록 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산소와 먹이 공급은 하지 않았다. 유영저해란 시험용기를 천천히 움직여도 물벼룩이 15초간 헤엄치지 못하거 나 치사를 보이는 경우를 말하며, 반응을 하지 않거 나 정상적인 움직임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촉각만 움직일 경우에도 유영저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 다. 급성유영저해시험은 유해물질이 첨가된 시험수 내에서 물벼룩이 24시간 또는 48시간 이후의 유영 저해 정도를 살펴보는 실험이다. 본 실험의 절차 등

Fig. 1. 100mg/L Hardness-C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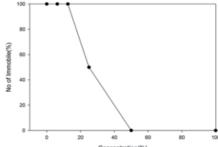


Fig. 3. 100mg/L Hardness-Pb

2.2.2.1. EC50산정

EC50이란 실험시 일정 농도구간에서 물벼룩 의 50%가 유영저해를 보이거나 번식률을 50% 감 소시키는 물질의 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Dose-Response 관계를 표시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실험물질에 대한 반응은 Linear interpolation에 의해 산정하였고, EC50에 대한 95%신뢰한계치를 Toxcalc 5.0으로 산출하였다.

2.2.2.2. NOEC, LOEC 결정

NOEC(No Observable Effect Concentration)란 물벼룩의 유영저해가 관찰되 지 않거나 대조구와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 농도로 무작용 농도 중 최고시험 농도이다. 각 시험농도 구와 대조구의 결과를 Toxcalc 5.0으로 산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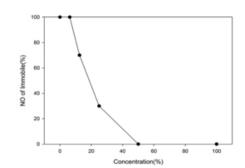


Fig. 5. 200mg/L Hardness-Z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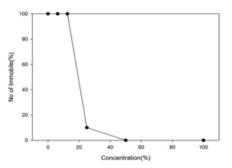


Fig. 7. 500mg/L Hardness-C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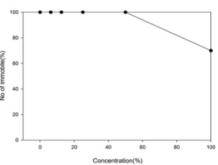


Fig. 9. 500mg/L Hardness-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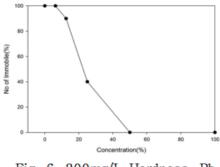


Fig. 6. 200mg/L Hardness-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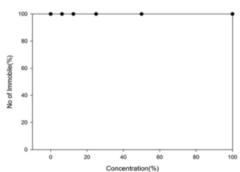


Fig. 8. 500mg/L Hardness-Zn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경도가 500 mg/L as CaCO3으로 높아진 시험구에서는 생태독성값(TU) 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이는 경도유발물질이 수계에 다량 존재할수 록 중금속류의 이온과 상호 경쟁상태에 이르게 되 면서, 생물에게 직접적인 독성영향을 급성으로 유 발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그러므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인근에 위치하 고 있는 경안천 수계는 경도가 120mg/L as CaCO3 로 강수량이 높지 않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 였을 때, 가뭄이 심한 갈수기에도 외부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중금속류의 오염이 없을 경우, 중금속의 농도에 의한 생물독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낮은 것 으로 판단된다.

Table 4. EC50, TU, NOEC, LOEC value obtained from 24h-acute immobilization tests of each Hardness-Heavy metal for Daphnia magna

	EC50(%)	TU	NOEC(%)	LOEC(%)
100-Cu	20.2	4.95	12.5	25
100-Zn	24.864	4.02	12.5	25
100-Pb	23.9	4.18	12.5	25
200-Cu	23.864	4.19	12.5	25
200-Zn	45	2.22	25	50
200-Pb	54.545	1.83	25	50
500-Cu	40.625	2.46	25	50
500-Zn	100	1	100	100
500-Pb	100	1	50	100

서 구하였다. LOEC(Lowest Observable Effect Concentration)란 물벼룩의 유영저해가 관찰되거 나 대조구와 인정되는 농도로 작용 농도 중 최저시 험 농도이다.

3.결과 및 고찰

3.1. 급성유영저해시험

중금속과 경도에 대한 급성유영저해 시험의 결 과는 Fig1에서 Fig9까지와 같으며, 각각의 중금속 에서의 EC50의 농도가 경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 게 나타났다.

EC50, TU, NOEC, LOEC에 대한 결과값은 Table4와 같다.

3.2. 경안천 수계 물리화학적 특성 및 생태독성 평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자연생태하 천에서의 경도와 중금속류 물질의 농도에 따른 생 물독성발현에 대해 고찰해 보기 위해 한국외국어대 학교 정문앞에 위치하고 있는 모현사거리에서 경안 천 하천수를 채수하였다. 채수된 시료는 중금속류, 경도 등의 물리화학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물벼룩

〈효율적인 지면구성을 위해 각주와 참고문헌 은 지면에서 삭제했습니다. 논문의 원본은 홈 페이지에 올립니다.>

심사 총평

견진만 주간교수

학기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 논문을 투고한 학생들과 심사를 해 주신 교 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교 적 많은 논문이 접수된 가운데 수상의 영예를 안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수 상작인 인문분야 "국내 인문학의 위기와 그 원인, 그리고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극복방 안", 사회분야 "유럽연합의 문화수도 프로그 램 분석: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공분야 "Hardness 농도가 중금속류(Copper, Zinc, Lead)의 물벼룩 생태독성 발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주제가 시의적절 하고 흥미로우면서도 학부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높 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본 연구들의 한계점으 로 지적 된 부분들은 후속 연구 소재로써의 가 치를 지니기에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등교 육이 취업 위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성과는 '대학의 정체성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분야는 달랐지만 '인간, 사회, 자 연'을 관찰하는 예리한 통찰력이 우리의 미래 를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 감을 안겨 준 것 만으로도 이번 학술대회는 충 분히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진리 추구의 장' 에 초대받은 심사자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 번

입상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Table 5. Analysis of heavy matal materials from Gyeongancheon

항 목	경도	Mg	Fe	Zn	Cu	As	Cd	Pb
농도 (mg/L)	120	8.13	0.02	0.01	0.01	0.07	0.02	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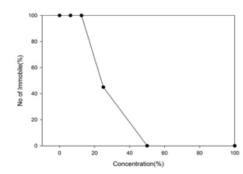


Fig. 2. 100mg/L Hardness-Z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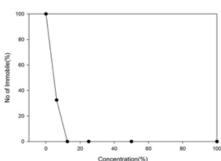


Fig. 4. 200mg/L Hardness-C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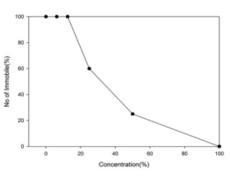
생태독성평가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그 결과 24시 간 물벼룩 생태독성은 희석을 전혀하지 않은 경안 천 하천수 100% 시료에서 전원 생존하여 TU=0으 로 평가되었고,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장비를 이용하여 중금속류 물질에 대한 화학분석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4.결론

환경 중 수계에 공장폐수 등으로 인하여 하천이 나 강에 유해한 중금속이 유입되어 생물에 대한 독 성평가를 수행하기위해 수질환경공정시험기준 표 준시험법에 따른 Daphnia magna를이용하여 평가 하였다.

1. 급성유영저해시험에서 중금속에 대한 독성은 경도가 높아질수록 TU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 다.

2. 급성유영저해시험에서 EC50값은 경도가 100mg/L, 200mg/L as CaCO3일때는 독성값에



14 **열린공간**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외 대 학 보**



정말 뒷담하는 기자

뒷담하는 기자에는 가벼운 이야기만 쓰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뒷담을 해야 할 시간이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배움터에는 '우리 언론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우리 언론사는 학교 산하기구가 아니므로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보자마자 학교 산하기구이자 언론기관인 외대학보가 떠올랐다.

그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언론사를 힐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자 유언론 정론직필'을 사수해온 외대학보가 학교의 산하기구란 이유로 언론의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즈음 부쩍 회의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989호 외대학보는 박철 전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한 노조의 기자회견 기사를 실었다. 그리고 990호에는 공판에 대한 기사 역시 실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국 기사는 지면에 실리지 못하고 삭제됐다. 아직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기사가 박철 전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엔 학부모 직업조사가 실시돼 학내외 여론이 들썩였다. 학보는 보도기사에 이 사실을 다뤘지만 발행된 신문에는 역시 해당 기사가 없었다. 만평도 마찬가지다. 990호에 실릴 만평은 교비 횡령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클린 주점을 다룬 만평으로 급하게 바뀌었고 만평을 그린 기자에 비할 수 없겠지만 나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이 상했다.

이번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면 편집장이 된다.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다. 후배들에게 밤새 써낸 기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경험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기자들은 언론이 가진 힘을 믿고, 그 힘을 옳게 쓰고 싶어 학보사에 들어온 것이지 언론이 더 큰 힘에 무너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려 들어온 것이 아니다. 기자가 내놓은 기사들은 지면에 실려야 한다. 독자 여러분은 기사를 지면에 실을 것인지, 신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박은혜 기자

어깨너머 듣는 교양

이미지 세계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 서양미술사입문



정호경(미네르바 교양대학 · 서양미술사입문 강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는 미술사 공부를 시작했을 때 은사님께서 대학원생들에 게 강의 첫 날 왜 이 분야를 공부하는지 물으시며 말씀하셨던 명 제어이다. '자유롭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셨던 스승께선 퇴임 사에서 당신을 '미술사학도'로 칭하셨다. 학문적 완성을 하신 원로학자이기보다 미술사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청년과 같은 학문 관을 보여주시며 많은 후학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셨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진정한 완성형을 선언하기란 얼마나 어렵고도 힘든 일인지 새삼 깊이 깨닫는다. 학문의 시작과 마지막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구 도자로서 완수함과 동시에 매진하는 분야에 함몰되는 것이 아 닌, 항상 유연한 시각으로 노래하듯 글을 쓰고 사고하라는 스승 의 족적이 더 크고 통렬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오늘날 아카데미는 존재의 이유가 취업률과 실제적인 성공을 보장하는가에 집중돼있다.. 스펙 쌓기와 학점관리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선 많은 학생들에게 진리의 자유로움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때로는 무의미하다고 느끼는지를 체감하기도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자유를 향한 공부는 지성인의 미혹(迷惑)같은 이끌림이자 스스로의 삶을 완성하려는 여정(版程)에 들어선 자들에겐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

예술에서도 한 시대와 세상의 단면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치우침 없는 자유와 완성을 향한 치열한 자기과정이 수반된다. 과정에서 시대를 선도했던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완성된 걸작 못지않게 미완성 작품과 2류로 폄하된 작품들도 그 의미를 갖는다. 그 무수한 시간을 버티며 많은 이들의 삶의 여정에 영감을 줬던 예술의 자유정신은 학문이 수단이 돼버린 요즘 역설적으로 더욱 영롱한 빛을 발한다. 이는 어쩌면 다양한 가치와 의미가 경쟁하듯 범람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진리의 여정에 오른 나와 우리 젊은 학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인 동시에 그 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자극제이자 안내서가 되지 않을까. 매주 수업시간에 우리는 이미지 창고를 탐색하며 우리만의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나가다.



Don't Look Back In Anger - Oasis

"My soul slides away but don't look back in anger, I heard you say" 채호연(경영 · 경영 14) 군의 열창은 꽁꽁 언 추위 속 행인의 걸음을 멈췄다. 어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밤이었다.

서명지 기자

무한궤도

유슬아(국제지역 · 유럽연합 15) 서울배움터 독자위원

단풍이 채 물들기도 전에 코끝이 시린 겨울이 왔다. 종강을 앞둔 우리와 외대학보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그전에 외대학보의 2015학년도 마지막지난호를 평가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All's Well That Ends Well≫이라는 작품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 현대에서도 통용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2학기 외대학보 지면평가를 잘 마무리하자는독자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총평을 하려고 한다.

먼저 독자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사에 반영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 아쉬웠던 부분이나 보충됐으면 했던 부분들이 다음 호에서는 수정됐으며 이에 감동했다. 또한 심층과 기획면에서는 시기적절한 내용으로 학생들이 궁금해하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기까지 했다. 인물면은 항상 흥미로운 내용으

로 구성돼 가장 쉽게 읽혔다. 특히 지난호에 실린 소설 가의 인터뷰는 문장 하나하나가 심금을 울렸다. '그녀 는 머릿속으로 넣는 것은 많은데 나오는 게 없어 글을 쓰게 됐다'는 구절이 특히 인상깊었다. '배운 것을 어떻 게 활용할 것인가'하는 모든 지식인의 고뇌를 취업과 도 연결지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인물면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만남으 로 얻어진 어떤 사람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라 는점에서 더 의미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독자위원의 임무는 여기서 끝나지만 독자로서 외대학보가 무한히 발전하고 또한 독자들에 게 꾸준한 관심을 받기를 기원한다. 외대학보는 무한 궤도처럼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외대학보가 990호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 은 무엇일까? 11월 총선의 문제점 고발? 국제지역대학 아카데미 위크의 성공적 개최?

신문에서 1면 탑기사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같은 맥락에서 990호 1면의 기사가 '국제지역대학 아카데미위크'의 성공적 개최를 알려주기 위한 기사였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도 매우 크다. 요지는 990호의 메인 기사는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 학술제의 성공이 1면에 기재할만큼 중요한 현안인가? 이미 지난행사에 대한 성공을다루는 기사는 단발성 자축이 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끝없는 11월의 악몽' 기사가 1면 탑기사에 실렸다면 선거를가볍게 여기는 풍토에 위기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수있었을 것이다.

3면의 총학생회선거 정견토론회 심층 기사에도 부족 함은 드러났다. '한울'측의 애매한 공약, 부실했던 선거운 동과 관련해 학생들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공

이호열(동유럽 · 헝가리 10) 글로벌배움터 독자위원

공연한 사실이다. 아거스, 교지, FBS, 외대학보는 더욱 날카로운 질문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했다. 학보에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 수 있다. 하 지만 독자들은 1+1=2 가 아닌 3을 원한다. 타당하고 핵 심적인 질문을 건너뛸 수는 없지만 외대학보만의 차별화 된 질문까지 덧붙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짙다.

글에는 애정이 드러나야 한다. 아무리 현란하고 날카 로운 글이라 하더라도 글쓴이의 정이 묻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죽은 글일 것이다. 글에 대한 정이라 함은 중립을 지켜야할 기사에 주관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 다. 글의 목적을 정확히 하겠다는 강단을 말하는 것이고 견고한 글을 써야겠다는 책임감을 일컫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애정이 가는 지면은 6면과 7면이 아닐까 싶다. 철의 무지개는 지지 않고 비온 뒤땅은 굳기에. 부디 이 글 이 외대학보의 성장에 훌륭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의 대 학 보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열린공간** 15



응답하라 1972

국부장 고정칼럼

▲ '응답하라' 열풍이 불고 있다.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에 이어 최근에 방영을 시작한 '응답하라 1988'도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드라마에서 그 시대의 모습을 거의 완벽히 재연해 많은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한다. 이것이 이 드라마의 인기 비결로 꼽힌다.

▲그런데 최근 몇몇 학교에서는 응답하라 시리즈에나 나올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성신여대에서는 학점 때문에 총학생회장 선거 중 후보자가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성신여대 중선관위는 "학칙에 의거해" 매년 총학생회장 후보의 성적조회를 학교 측에 요청, 징계여부 확인 공문을 보내왔다. 이번후보자에 대해학교 측은 '성적 미달'이라고 밝혔고 중선관위는 긴급회의를 개최해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해당 총학생회장 후보자는 입장서를 통해 "이러한 학생회장 자격기준 학칙은 이미 타대학에서는 이미 사문화된 자치침해조항"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12월엔 이화여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학교 측이학점이 낮다는 이유로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중단을 권고했다. 이또한 "학칙에 근거한" 조치였다. 이에 이번해 1월 6일 이화여대와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이화여대학관에서 "대학의 학생자치 침해에 대하여! 위헌학칙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학생자치 침해는 유신시절 제정된 '학칙의 독소조항' 때문에 일어난다. 독소조항이란 법률이나 공식 문서에서 본래 의도

하는 바를 교모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뜻한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스임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어느 선이상이여야 하고 스대자보 부착·시설물 이용 시학교의 명예를 침해할 경우 주무부서에서 승인 거부가 가능하며 스시험기간에 자치활동이 금지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헌적 학칙이 존재했다. 또한일부학교에서는 학칙에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학교의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 마음대로학생들의 집단행동을 규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

▲안타까운 것은 2012년 대학 자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부에 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행령을 없애 학칙 재·개정의 열쇠는 총장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다. 총장의 결단 없이는 완전한 독소조 항의 해소는 불가능하다. 학칙 재·개정뿐만 아니라 학교의 전반 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대학평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학생도 소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이 목소리 내기는 힘들다.

▲유신시대가 이미 막을 내린지 30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학칙 독소조항들은 대학사회에 아직까지 남아 학생들의 자치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러한 독소조항을 통한 학교의 규제는 지난해에도, 이번해에도 어김없이 이뤄져왔다. 이번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자격 박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악칙을 개정해야 한다. 더이상 대학사회가 퇴보하고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된다.



학문과 예술의 길

우리학교 학술대전에 '인문·사회·이공'분야 수상작이 발표됐다. 본작품들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나 각자의 길로 학문의 산을 오르다 보면 하나의 봉우리에서 만나게 된다. 20세기 사회과학 분야의 거두인 칼 포퍼(Karl Popper)와 이공학 분야의 천재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이 인류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는 편지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 한다. 피타고라스(Pythagoras)가 발견한 '황금비율'은 기하학을 넘어 서양의 음계를 디자인한 바하(Johann Sebastian Bach)의 평균율에 결정적영향을 미쳤다. 피타고라스에게 '수학'이란 천상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노래할 수 있는지상 유일의 악기였던 셈이다.

이처럼 '지식'과 '기술'은 상호의존적일 뿐 아니라 어느 단계에 이르면 '예술'로 승화된다.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가 해부학에 심취했다거나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시서화(詩書畫)에 능했던 이유이다. 학술, 기술, 예술'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술(桐)의 어원에는 "사람이 모여서 생긴 마을 안의 길"이란 뜻이 담겨있다. 인류가 기야할 길을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돌아보는 안목'에서 찾아야 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학술대전에서의 입상작은 우리 모두가 사라져버린 어느시점에도 2015년 외대인들이 살다 간 기억이자 학문 후속세대에 대한 작지만 소중한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이번 해가 가기 전 모처럼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봐야겠다. '인간초상의 본연'으로 불리는 반가사유상의 천년을 넘어선 미소와 마주할 설렘을 안고서.

이럴 거면 유예 기간은 왜 가졌나

대학가가 또 다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강사법은 2010년 5월 조선대시간 강사의 자살을 계기로 이듬해인 2011년 제정됐다. 강사법의 주요 골자는 강사들에게도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비용은 대학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강사의 대량 실직이 발생한다는 우려와 대학과 강사 측의 거센 반발로 시행이 2번이나 유예됐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다음해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법이 제정된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유예 기간을 가졌지만 제대로 된 대안과 수정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대학신문의 보도에 따르 면 여러 대학협의체와 강사단체들은 교육부가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 하며 강사법의 폐기를 주장했다고 한다.

지난해 우리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14학년도 1학기, 학점 인플 레이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우리학교는 재수강자 성적 제한, 절대평가 기준 조정 등 학사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반발로 개편안의 보류 및 전면 재논의를 결정했다. 그러나 2014년 12월, 학교는 학사 제도 개편안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한학기라는 유예 기간을 가졌지만 학생들과의 소통은 없었다. 결국 학교와 학생 사이에는 매우 깊은 갈등의 골이 생기고 말았다.

어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더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갖는 시간이 바로 유예 기간이다. 서로의 의견이 반영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해 지난해 우리학교 학생들은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강 사법은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교 강사들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

제대로 된 개정안이 나오지 않고 시행이 미뤄질수록 강사의 죽음이 전하는 의미가 무뎌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과연 5년 전 그 강사가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바랐던 것 이 현 강사법의 골자와 일치하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 외대인이 만난 세계(8매) / 어깨너머 듣는 교양(7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편집장 이진형 010-7323-1915, 89matteo@hufs.ac.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견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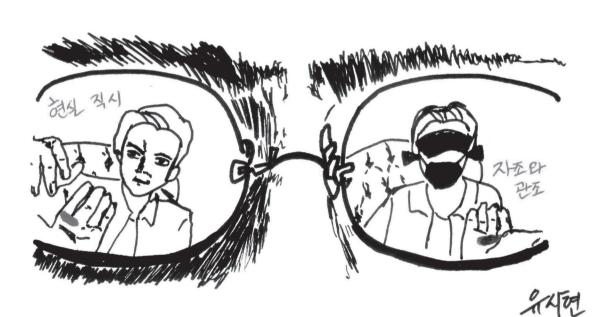
 편집장
 이진형

 제작
 artel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01

www hufspress net





십자말풀이

	0			2		0
	•					
	2					
0		8				
	8					
4						

가로

- 1. 북경에서 영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은 문화대혁명 기간에 폐교됐다가 1978년도 다시 열린 '0000000' 다. (7면 참조)
- 2. 000이 시행되면 강사들도 전임교원이 되므로 책임시수 9 시간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4대 보험과 퇴직금, 방학 중 강의료 지급 등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2면 참조)
- 제:(자물이 글로이다. (근건 점요) 3. 11월 25일 양 배움터에서 학교 발전 및 학생들의 만족도 개선을 위한 '00 이 외대를 말하다'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2면 참조)
- 4. 00000이란 부모의 자산이나 소득수준 등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순으로 계급을 매긴다는 뜻의 신조어다. (4면 참조)

세로

- 1. 훕스 톡 팀 프레젠테이션 대상 수상팀 엑사마는 인센티브형 장학 프로그램인 '0000 33인'을 설치 및 운영해 우리학교만의 글로벌 인재양성 홍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면 참조)
- 2. 영화 '0000' 는 '헤일섬' 과 마찬가지로 복제인간을 다룬 영화지만 복제인간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거부하고 탈출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4면 참조)
- 3. 멕시코에서는 무정부주의자들의 마을을 000000로 칭한다. (3면 참조)
- 4. 2014학년도 우리학교의 '국가0000000' 는 14개 사립대학 중 13위다. (5면 참조)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영화예매권 2장, 또 다른 1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독자와 소통이 늘었지만 점점 무더진 칼날" 독자 장 된 호해 비리본 의대학 보의 한 학기



2015학년도 2학기 동안 본지는 '열린 공간'의 '지난호를 말하다' 코너를 통해 매호마다 지난호에 대한 독지위원의 피드백을 받았다. 마지막 호인 만큼 전체적인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양 배움터 독자위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독자위원을 맡아 신문을 읽으면 서 이번학기 외대학보의 전체적 인 느낌 및 생각은 무엇인가?

- 나: 지난해까지의 학보를 보면 독자위원들의 요구가 개선되지 않 는 부분이 많아 안타까웠다. 하지만 이번학기는 달랐다. 학생들과 독 자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갔다고 생각한다.
- 유: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보도할만한 행사가 많다. 대학 원의 소식도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타 대학을 다닐 때 읽었던 학 보와 외대학보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학교 행사를 너무 간단하게 전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좀 더 고차원적으로 세심하게 다뤄줬으면 한다. 또 내용이 글로벌배움터에 치우쳐진 느낌이 있다. 서울과 글로 벌 내용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인물면은 대부분 독특하고 재밌 는 편이다.
- 호: 학기 초반에는 학보에서 대학 내 주요한 논쟁거리를 예리하 게 짚어내는 모습이 보여 즐겁게 읽었다. '대학구조평가', '몰카가 우리 를 향한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같은 기사들은 현재 사회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문은 정보 전달의 목적도 있지만, 여론을 조 성하고 유지시키는 가능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987호, 988호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그러나 990호는 읽으면서 많이 실망했다. 전 에 보였던 날카로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8면의 지면 중 중복되 는 주요 기사가 네개나 있었다. 그나마도 정보전달에 치우쳐 있는 기 사여서 안타까웠다.

대한 나열만 이뤄져있는 인터넷 기사에 대한 아쉬움을 '지구촌을 읽 다' 코너를 통해 달랬다. 자세한 전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좋았다.

- 나: 매호마다 시의적절하게 학술의 주제가 나오고 있다. 교수님 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국제적 시안을 알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하지 만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이 더 기우는 부분은 '외대인이 만난 세계'다. 이 부분을 늘렸으면 한다. 우리학교에는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학생들이 많다.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 소소한 경험들을 싣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학생들의 독특하고 다양한 기고 글을 담 이줬으면 한다.
- 유: '외대인이 만난 세계'는 일기형식이라 너무 주관적으로 느껴 진다. 일기장 느낌이 아니라 냉철한 시각도 필요하다. 또 국제면은 전체적으로 손이 안 간다. 소중한 면을 이깝게 사용하고 있다는 생 각이 든다. 새로운 기획과 배치로 국제면이 확실하게 개편됐으면 하 는 바람이다.
- 소: '외대인이 만난 세계'의 문체는 읽기가 너무 불편하다. 잘 안 읽게 되는 것 같아 이쉽다. 새로운 코너로 우리학교를 다니는 외국 인 학생들의 입장을 다뤄도 좋을 것 같다.

〈심층 및 기획: 4면, 6-7면〉

- 나 : 심층 및 기획면에선 기자의 신념이 돋보인다. 독자들이 한 사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 수 있어 좋았다. 예를 들면 988호의 세계 민속문화축전(이하 세민전)의 경우에도 세민전에 대한 존재에서 끝 난 게 아니라 다양한 심층적 정보를 전했다. 다른 기사에서도 많은 준비와 조사를 한 것이 느껴진다. 앞으로도 날카로운 기획들을 실어 줬으면 좋겠다.
- **유 :** 989호의 기획은 조금 약했다. 클린 주점도 괜찮았지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도서관, 국정교과 서 등 이슈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하지만 기 획은 늘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 호: 기획 및 심층면은 더욱 자세하고 꼼꼼하게 기사를 써야 한다 고 생각한다. 기사들이 점점 중복되고 날카로운 면이 무뎌졌다.
- 혜: 987호 심층면의 학식 관련 기사는 일반 신문들의 구조를 따 르지 않고 학식 식판 사진을 넣은 것이 참신했다. 창의적인 레이아 웃으로 독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사회: 8면〉

- 유: 개인적으로 그림과 고전영화와 같은 명작을 좋아한다. 사회 면의 칼럼은 그림과 포스터가 함께 실려 눈에 잘 들어온다.
- 나: 986호 사회면의 등록금 카드 납부 기사가 가장 마음에 들었 다. 이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카드납부에 대해 피상적 논의 만 있었다. 하지만 기사를 통해 우리학교는 왜 안 되는지, 다른 학교 사례는 어떤지 등 카드 납부에 대한 현황을 담아 등록금 카드 납부 를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알렸다.

정: 사회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알 수 있는 단순한 정보들이 아닌 외대학보의 시각으로 바라본 학내 사회문제들을 알 수 있어 뜻깊었

〈열린 공간: 10-11면〉

- 유: '뒷담하는 기자'는 기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 좋은 코너라 고 생각한다.
- 일시정지의 '그다음 수업이 어디더라'의 사진이 위트 있어 좋았 다. 하지만 만평의 퀄리티가 아쉽다. 만평의 글이 빠졌으면 한다.
- 소: 맞다.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글이 만평 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 정: 열린 공간은 빈의자와 뒷담하는 기자가 가장 재밌었다. 989 호의 '우리는 아직도'를 통해 기자들의 투자를 느낄 수 있었다.

〈인물: 12면〉

- 유: 990호의 소설가 김진규씨의 인터뷰가 독특했다. 인터뷰를 통해 김진규 씨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고 우리학교가 이런 예술가를 배출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인물면은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 하는 여러 사람들을 다루는 부분이 좋다. 또, 학교에서 인물들을 추 천해주는 줄 알았는데 기자들이 직접 인물을 찾고 인터뷰를 요청한 다는 것은 처음 알게 돼 놀랐다.
- 혜: 우리학교 선배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긍정적으로 자극받았 다. 990호 김진규씨 인터뷰 기사는 기자가 김진규씨의 소설을 직접 읽고 쓴 기사였다는 점에서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외대학보가 나아가야 할길

- 유: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보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눈 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1면 커버스토리를 무엇으로 담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시사적이고 관심이 많이 가는 큰 이슈를 담아야 한다. 불통 이 아닌 소통하는 학보가 됐으면 좋겠다.
- 소: 기자들과 만남의 기회를 더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 재밌는 구성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읽고 싶은 신문이 되길 바란다.
- 호: 크고 뜨거운 불기에 휩싸인 장작은 빠르게 타올라 시라진 다. 그 장작을 천천히 태울지 빨리 태워버리고 다른 장작으로 갈아 탈지는 언론이 결정한다. 보통의 대중들은 그저 불타오르는 것만 멍 하니 구경할 뿐 능동적으로 개입하려 들지는 않는다. 언론의 선택에 몸을 맡기고 그저 휩쓸려 가는 것이다. 그만큼 언론은 힘이 세다. 그 렇기에 신문을 구성하는 기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자신감과 주 관을 가지고 쓰는 글은 결이 다르다. 앞으로의 작성될 기사들에서 부디 정곡을 찌르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코너별로 파헤쳐보기 (보도 / 학술 및 국제 / 기획 및 심층 / 사회 / 열린 공간 / 인물)

〈보도: 1-3면〉

- 정: 보도면에선 모르고 있었던 학교 주요 행사들을 알게 돼 의미 가 있었다. 여러 정보들을 간략고 알기 쉽게 실은 점도 좋았다.
- 유: 전체적으로 신문에 정치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우리학교 학 생들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했던 것과 파리 테러 얘기 등 실을 만한 주제가 많았지만 990호는 특히 그런 주제들을 담아 내지 못했다.

〈국제 및 학술: 5면, 9면〉

- 정: 국제면에서 '지구촌을 읽다' 코너는 외대학보의 특색이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 혜: 학술면과 '지구촌을 읽다'는 학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 분이다. 인터넷 신문으로도 사회정치 면을 자주 읽는 편인데, 사건에

글 유시현 서명지 기자 91signpaper@hufs.ac.kr 사진 윤수연 기자 91alicia@hufs.ac.kr